

고양특례시 창업기업 현황 분석

김용덕·김은지



고양특례시 창업기업 현황 분석

연구책임자

김용덕

고양시정연구원, 시민정책연구실,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은지

고양시정연구원, 시민정책연구실, 연구원

GYRI 고양시정연구원
GOYANG RESEARCH INSTITUTE



발행일	2022년 11월 30일
저자	김용덕, 김은지
발행인	정원호
발행처	고양시정연구원
주소	(1039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 빛마루방송지원센터 11층
전화	031-8073-8341
홈페이지	www.goyang.re.kr
SNS	www.facebook.com/goyangre
ISBN	

I	서론	05
II	창업기업 개념과 특징	05
	1. 창업기업 개념	05
	2. 창업기업 범위	11
	3. 창업기업 특징과 성장모형	12
III	국내 창업기업 현황	13
	1. 창업기업 관련 통계	13
	2. 전체 창업기업 현황	14
IV	고양특례시 창업기업 현황 분석	27
	1. 고양특례시 창업기업 현황	28
	2. 주요도시 창업기업(법인) 비교 분석	32
	3. 고양특례시 창업기업(법인) 추가 분석	36
V	요약 및 주요 시사점	38



고양특례시 창업기업 현황 분석



요약

본 연구는 고양특례시 창업기업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고양특례시의 창업기업 현황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크게 6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고양특례시 전체 창업기업은 2016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법인기업(창업)의 경우에는 2016년 대비 국내 전체 법인기업(창업) 증가율인 31.3%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인다. 둘째, 국내 전체 창업률, 폐업률과 비교해 볼 때 고양특례시 창업률은 국내 전체 창업률과 비슷한 수준이나 폐업률은 국내 전체 폐업률보다 높은 특징을 보인다. 법인 창업률은 국내 전체 창업률 13.55%, 고양특례시 13.35%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법인 폐업률은 국내 전체 폐업률 5.60%, 고양특례시 6.01%로 고양특례시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인다. 셋째, 인구 50만 명 이상인 타 도시와 비교해 볼 때 고양특례시의 창업기업 규모와 증가율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고양특례시의 창업기업 중 법인기업 수는 총 33개 도시 중 19위에 머무르고 있으며, 2016년 대비 2021년 창업 법인기업 수 증가율은 33개 도시 중 32위 수준이다. 또한 창업 법인기업의 2016~2021년 연평균성장률은 33개 도시 중 32위이다. 넷째, 고양특례시 법인기업(창업)의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업의 업종 비중은 약 36.4% 수준으로 국내 전체 법인기업(창업) 비중인 43.2%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섯째, 고양특례시 청년창업(39세 이하) 비중은 16.3%로 2021년 기준 전체 법인기업(창업)의 청년창업 비중인 28.5%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 고양특례시 50대 이상 창업 비중은 44.1%로 2021년 기준 전체 법인기업(창업)의 50대 이상 창업 비중 25.5% 대비 높은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고양특례시 기업 당 평균 고용 인원을 살펴보면 벤처창업기업이 일반창업기업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양특례시 일반창업기업 고용 인원은 1만 2,556명 수준이며 평균 5.4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벤처창업기업의 경우 고용 인원은 1,733명이며, 평균 8.5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는 벤처창업기업이 일반창업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 측면에서 우수함을 뜻한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양특례시는 전반적으로 낮은 창업기업 규모나 증가율, 높은 폐업률 등을 감안할 때 창업생태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국내 전체 청년창업 비중과 비교해볼 때 고양특례시의 청년창업 비중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고양특례시의 청년창업 환경을 점검하여 청년창업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일

자리 창출과 연계를 고려할 때, 기업 당 평균 고용인원이 높은 벤처창업기업 육성과 유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고양특례시 창업기업의 현황 분석과 기초 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고양특례시 창업기업 관련 기초자료 제공 및 정책 방향 수립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I. 서론

창업은 개인이나 집단이 새롭게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사업 아이디어를 토대로 사업 목표를 세우고 자본, 노동, 설비 등 자원을 확보, 활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는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창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창업은 부의 창출을 위한 활동이지만, 사회적으로는 고용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경제적으로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개발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제정하여 창업 촉진을 위해 금융과 세제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면서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창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 내 창업기업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을 통해 다양한 창업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고양특례시에서는 창업기업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기초 연구도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민선 8기 출범으로 창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창업기업 관련 기초 연구는 시의적절한 연구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고양특례시 창업기업 현황 분석과 기초 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고양특례시 창업기업 관련 정책 수립에 제공되는 기초 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고양특례시 창업기업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창업기업 개념과 범위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국내 창업기업의 현황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고양특례시 창업기업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한다. 5장에서는 창업기업 현황 분석을 토대로 주요 시사점을 제시한다.

II. 창업기업 개념과 특징

1. 창업기업 개념

1) 창업기업 정의와 유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정의된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 정의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 동법 제2조 2항에서는 창업자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초기 창업자는 창업자 중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보고 있다(김선우·김강민, 2020).

한편 창업기업과 함께 혼용되는 스타트업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처음 사용된 단어이며 일반적으로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대규모 자금조달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신생벤처기업, 초기창업기업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혼용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정의를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정의

구 분	정 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 포함)
서대훈(2019)	(제2조 제2의 3호) 초기창업기업이란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까지의 기업
EU	기술기반으로 창업한 비상장기업
Jo(2017)	상품·서비스·사업모델이 혁신 기반이며 종업원을 늘리거나 매출 증대의 목표를 가진, 설립한지 10년 이내인 기업
Jeon(2016)	첨단기술 혹은 전에 없던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급속도로 성장하는 기업으로 전문투자기관 투자를 받았거나 유치 준비중인 기업
Eric(2012)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신생 벤처기업
황세희 외(2020)	극심한 불확실성 아래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해 디자인된 인간 조직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적 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로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신생 기업

일반적으로 ‘창업’은 ‘새로운 사업 혹은 경제활동을 시작함’을 뜻한다. 또는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 기회를 포착하여 사업 목표를 설정한 후 자본·인력·설비 등을 확보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이윤준 외, 2012). ‘창업’의 법률적 정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뜻하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르면 타인으로부터 사업 승계로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나 조직 변경 후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폐업 후 동종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창업은 목적과 신생기업 원천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정호진 외, 2020). 생계형 창업은 창업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기회형 창업은 고용 기회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창업한 경우를 뜻한다(Kelly et al., 2011). 특히 기회형 창업은 불확실성, 위험 수용, 실천 의지 등 기업가정신과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기회형 창업 증가와 경제성장 간 밀접한 양의 관계가 존재한다(이윤준 외, 2012).

기술창업가이드(중소기업청·(사)한국창업보육협회, 2015)에 따르면, 창업은 ‘창업자가 사업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자원을 결합하여 사업 활동을 시작하는 일’이라고 정의하며 기술창업, 벤처창업, 일반창업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창업 유형

구 분	정 의
기술창업	혁신기술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제품이나 용역을 생산 및 판매하는 형태의 창업
벤처창업	High Risk-High Return에 따른 벤처기업을 시작하는 일(「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반창업	기술창업이나 벤처기업에 속하지 않는 유형으로 도·소매업과 일반서비스업 등 생계형·생활밀착형 소상공인 창업·개업

자료: 정호진 외(2020)

이렇듯 창업기업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저자본·저기술 생계형 창업의 경우, 지속적인 고용 창출을 이루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 정부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이 뒷받침되는 기술창업이나 벤처창업을 장려하고 있다.

기술창업기업에 대해 살펴보면, 기술창업기업은 명확한 정의가 없고 NTBFs(New Technology-Based Firms)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NTBFs는 혁신과 경제성장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Arthur D. Litter Group(1977)에서는 ‘발명과 혁신을 활용하기 위해 창업된 독립된 신생기업’으로 정의하였다(김정홍 외, 2015에서 재인용). 이를 바탕으로 Gassler(1988)는 NTBFs를 ‘최근 5년간 창업된 독립된 기업이면서 첨단기술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Kirchhoff는 NTBFs를 ‘성장성과 혁신성이 모두 높아 신규 고용 창출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소기업’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김정홍 외, 2015).

또 다른 연구에서는 NTBFs를 ‘기업의 경쟁력이 종업원의 지식과 숙련도 등에서 나오고 이를 활용해 시장에서 판매되는 재화와 용역을 만들어 내는 신생기업’으로 정의하였다(Klofsten, 1992; Rickne & Jacobsson, 1999). 그뿐만 아니라 젊은 첨단 창업기업(young and high tech start-ups)으로 정의하거나(Grilli et al., 2013), 특허 등 기술적 기반이 있고 기업가정신을 지닌 젊고 작은 독립된 기업(Rickne & Jacobsson, 1999), 연구개발(R&D) 집약도가 높은 기업이라고 명명하기도 했다(Lindqvist, 1991). 그 외에도 NTBFs를 특허와 같이 기술혁신의 성과를 활용하기 위해 설립된 창업기업군과 R&D 집약도나 연구 인력이 평균보다 높은 고기술산업에서 조업하는 모든 창업기업군 등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누기도 했다(Saemundsson, 1999).

이처럼 해외 문헌에서 NTBFs를 정의한 것을 종합해 보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설립된 창업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기술창업기업 개념과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2) 창업기업의 기본 요소

창업기업의 기본 요소를 살펴보면 크게 기업가정신, 비즈니스 모델, 기술사업화가 포함된다. 각각의 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은 ‘미래의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과 중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주도적으로 기회를 포착하고 도

전하며, 혁신 활동을 통해 개인적·사회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산출하는 실천적 역량’을 의미한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는 진취성(Proactiveness), 혁신성(Innovativeness), 위험감수성(Risk-taking propensity) 등이 있다(Miller, 1983). 여기서 진취성은 새로운 기회를 적극적으로 잡기 위해 노력하는 특성이며, 혁신성은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특성이고, 위험감수성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큰 위험이 따를 수 있는 상황임에도 과감히 도전하는 특성을 의미한다(Covin & Slevin, 1989).

한편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7)에서는 기업가정신을 ‘미래의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과 중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주도적으로 기회를 포착하고 도전하며, 혁신 활동을 통해 개인적·사회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산출하는 실천적 역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는 크게 4가지로 도전정신, 창조성·혁신성, 리더십(자기주도형), 가치지향이 있다. 먼저, ‘도전정신’은 위험을 감수하는 성향이며 진취성(적극성)이 있고, 미래지향적인 신념을 중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창조성·혁신성’은 변화를 선호하는 성향과 유연성(융합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외부 수용성(개방적 혁신)이 있고 기술을 중시한다. ‘리더십’은 자율성을 띠며 사회적 네트워킹을 특징으로 하며 자기효능감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치지향’의 경우 성취 욕구가 있고 목표지향적으로 행동하며 사회공헌이라는 가치를 중시한다.

앞서 언급한 기업가정신의 4가지 구성요소와 세부 요소를 정리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기업가정신 구성요소

구 분	세부 요소		
	인성적 특징	행동적 특징	가치 및 신념
도전정신	위험감수 성향 모호성에 대한 인내	진취성(적극성)	미래 지향성
창조성 혁신성	변화 선호 성향	유연성(융합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의지 외부 수용성(개방적 혁신)	기술 중시
리더십(자기 주도형)	자율성	사회적 네트워킹	자기효능감
가치지향	성취 욕구	목표 지향성	사회공헌

자료: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7)

(2) 비즈니스 모델

창업기업은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해야 하며, 이는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비즈니스 모델이란 비즈니스(Business)와 모델(Model)이 합해진 용어로 두 가지로 나누어 각각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비즈니스’는 가치 있는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산업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으며, ‘모델’은 복잡한 대상 또는 절차를 의미하는데 결국 일정한 목표를 가진 다양한 참여자 간의 관계를 포함하는 개념적인 도구로서 특정한 기업의 사업 논리(Business Logic)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한다(Osterwalder et al., 2005; 김경환, 2018).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의 정의를 정리하면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비즈니스 모델 정의

구 분	정 의
Timmers(1998)	다양한 사업 참여자와 그들의 역할을 포함하는 제품 서비스, 정보 흐름의 구조이며 다양한 참여자의 잠재적인 이익과 수익 원천을 설명해주는 청사진
Venkatraman & Henderson(1998)	고객과의 상호작용, 자산 형태, 지식 수단 등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조정된 계획
Amit & Zott(2000)	사업기회의 가치 창출을 위해 설계한 거래 내용, 구조, 관리를 설명해주는 것
Ethiraj et al.(2000)	가치창출의 계획
Rappa(2000)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사업을 영위하는 방식
Johnson et al. (2008)	고객 가치 제안, 수익 공식화, 핵심 자원, 핵심 프로세스의 네 가지 구성요소가 서로 맞물려 가치를 창출하고 전달하는 것

자료: 송영민·김경환(2019)

(3) 기술사업화

기술사업화는 제품 개발, 생산, 판매에서 기술의 진보를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사업화의 개념 정의는 연구자마다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기술개발 또는 도입’을 통한 기업에서 ‘제품 생산, 개선, 판매’를 도모하며, 시장에서 ‘기업의 경쟁력, 부가가치, 수익’의 성과를 창출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김태일, 2016). 한편 Jolly(1997)는 기술사업화 단계를 ①착상(Imaging) ②보육(Incubating) ③시연(Demonstrating) ④촉진(Promoting) ⑤지속(Sustaining)의 5단계로 정의하였다(송영민·김경환, 2019; 양영석·김명숙, 2016). 이와 같은 기술사업화 정의를 광의적 개념, 중범위적 개념, 협의적 개념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기술사업화 정의

구 분	정 의	
광의적 개념	박종복(2011)	혁신의 전 주기 관점에서 기술의 이전, 거래, 확산, 적용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제반활동과 그 과정
	산업연구원(2012)	제품 및 공정개발에 적용 가능한 기술이 개발 완료되어 출시 제품이 제작 완료되기까지의 과정
	KISTEP(2014)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참여하여 연구개발과 이를 통해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는 일련의 과정
중범위적 개념	Teece(1988)	기술 지식을 통하여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로 연결하여 동적 역량(dynamic capability)을 만들어내는 과정
	이영덕(2010)	새로운 기술을 이해하고 개선하여 기업의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과정
협의적 개념	Perkmann(2013)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창출된 연구 결과로서의 기술이 특허 이전 또는 라이선싱과 같은 방법으로 정책적, 산업적 영향을 미치는 과정
	STEPI(2009)	보유기술의 잠재적 가치 실현을 위해 기술을 이전하거나 생산 과정에 적용함으로써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절차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4)

3) 창업가 유형

창업가의 의사결정과 행동이 창업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향후 행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창업기업의 설립 자이면서 기업의 중심이 되는 창업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Chandler et al., 2011). 창업가 유형은 생각과 행동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창업가를 생각과 행동을 기준으로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적 관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원리원칙형(Causation)의 관점에서 보면,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의 전통적인 모형은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견해(Tenets of Neo-Classical Economics)를 기반으로 개인 또는 기업이 창업가적 기회(Entrepreneurial Opportunities)를 어떻게 발견하고 행동으로 옮기는지를 보고자 한다. 원리원칙형은 기대수익(Expected Return)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수단(Means)을 선택하여 창업가적 기회를 활용한다. 하지만, 이 모형은 현대사회와 같이 불확실하고 역동적인 창업 환경에서는 창업가의 행동과 사고방식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Sarasvathy, 2008). 따라서 지금과 같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창업가의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현실추구형(Effectuation)과 창의발명형(Bricolage)이 등장하였다(Sarasvathy, 2001; Baker & Nelson, 2005).

현실추구형은 역동적이고 상호작용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결과물(Artifacts)을 창출한다. 이 유형에 속하는 창업가는 원리원칙형과 다른 논리를 펼치는데, 그 이유는 목표 고객(Target Customers)이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지 오직 사후적으로만 알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실추구형 창업가는 목표가 끊임없이 변하기에 원리원칙형처럼 사전에 정할 수 없으므로 목표를 정해서 추구하기보다는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자원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Sarasvathy, 2001).

다음으로 창의발명형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원을 조합하여 새로운 문제에 적용하는 데 능숙하며(Baker & Nelson, 2005), 이 용어는 프랑스 인류학자 Levi-Strauss(1966)가 기술자(Engineer)와 숙련공(Handyman)의 행동을 구별하고자 만든 용어이다. 기술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 목표를 설정한 다음 이에 맞게 필요한 자원을 수집하고 활용한다. 반면에 창의발명형은 주변에 있는 자원을 새로운 관점에서 조합하여 문제를 해결하므로 이들의 결과물은 유사할 수 있으나,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식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다(Fisher, 2012).

이러한 이론적 관점을 통해 구분된 창업가 유형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창업가 유형

구 분	현실추구형(Effectuation)	창의발명형(Bricolage)
결과물 창출 방법	전문지식 논리 활용	주변에 있는 자원을 조합하여 새로운 문제와 기회에 적용
문제 해결 접근 방법	통제할 수 있는 가용 가능한 수단에 집중	주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새로운 관점에서 조합하여 문제 해결

2. 창업기업 범위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창업기업은 크게 기술창업과 일반창업으로 나누어지며, 기술창업은 다시 제조업과 지식 서비스업으로 나눌 수 있다.

제조업은 크게 첨단기술, 고기술, 중기술, 저기술의 4가지로 나누어진다. 첨단기술에는 의약품, 전자부품, 의료·정밀기기 등의 업종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고기술에는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자동차, 철도 등의 업종이 속한다. 중기술에는 연탄, 고무, 1차 금속 등의 업종이 포함되며 저기술에는 식료품, 음료, 담배 등 기타 제품 제조 업종을 포함한다. 지식 서비스업은 크게 4가지 업종인 창의 및 디지털, ICT, 전문서비스, 공공서비스로 나눌 수 있으며 이 4가지에 속하는 업종을 혁신형 서비스업 창업이라고 한다.

일반창업은 생계형 창업과 기타 서비스업 및 건설업으로 나눌 수 있다. 생계형 창업은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을 포함하며, 기타 서비스업 및 건설업은 일반(개인) 서비스업과 건설업을 포함한다.

[표 7] 창업기업 범위

구 분		업 종	혁신창업 구분
기술 창업	제조업	첨단기술 의료용 물질·의약품,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항공기·우주선·부품 제조업	혁신형 제조업 창업
		고기술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전기 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철도 및 기타운송 장비(항공기 제외)	
		중기술 코크스·연탄·석유 정제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제품, 1차 금속,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제외), 선박 및 보트건조업	비혁신형 제조업 창업 ·생활혁신형 제조업 창업
		저기술 식료품, 음료, 담배, 섬유제품(의복 제외), 의복·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가죽·가방·신발,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 제외),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가구, 기타 제품 제조	
	지식 서비스업	창의 및 디지털 출판 광고 영화,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서비스,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오락 뉴스 활동 및 박물관	혁신형 서비스업 창업
		ICT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컨설팅, 통신, 전기통신,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 정보서비스,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 데이터 프로세싱 데이터베이스 작업, 뉴스 제공,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	
		전문 서비스 연구개발, 전문서비스, 법무 회계 건축 서비스, 광고대행, 옥외 및 전시 광고,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경영컨설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전문디자인, 번역 및 통역서비스, 사업 및 무형재산권 중개,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인력 공용	
		공공 서비스 사업지원 서비스, 보안시스템 서비스, 전시 및 행사 대행, 포장 및 충전, 교육서비스, 온라인 교육 학원, 의료 및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일반 창업	생계형 창업	도매 및 소매업	비혁신형 서비스업 창업 ·생활혁신형 서비스업 창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 서비스업 및 건설업	일반(개인) 서비스업	기타
		건설업	

주 : 업종명은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를 따르며, 기술수준에 따른 제조업의 분류는 산업연구원에 따름
 자료: 이정우 외(2018); 정호석 외(2020)

한편, 혁신창업은 생계형 중심의 일반창업과 달리 기술창업과 생활혁신형의 기회추구형 창업과 유사한 개념

이며, 과학기술과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기업의 가치를 창출한다. 중소기업청·창업진흥원(2013)의 창업분류를 바탕으로 혁신창업과 일반창업을 분류하면 위 [표 7]과 같다(이정우 외, 2018).

3. 창업기업 특징과 성장모형

창업기업의 특징은 기존 산업조직에 비해 소수 인원으로 구성되어 환경 변화에 비교적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어떤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하여 기존의 산업 환경에 새로운 바람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성과 주체성을 가지고 대등하게 결합하므로 산업조직이 수평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차별화된 기술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사업 품목은 대기업이 진출하기에는 수익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예상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특수한 전문기술을 가지고 진입비용이 낮은 품목을 선정하여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또한 창업기업은 주로 제품 혁신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아 컴퓨터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AI 등 첨단기술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기업에 비해 매출이나 고용 측면에서 높은 성장을 보이므로 실물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창업기업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창업기업 특징

구 분	특 징
창업가 성향	변화를 좋아하고, 안정성을 지향하기보다는 위험을 선호하며(risk-taker) 진취적인 특징
조직 측면	소수정예, 신속한 반응(quick-response), 유연성(flexibility), 수평적 산업조직 전개
사업영역 측면	틈새(Niche) 시장에 산업의 바탕을 둔 고성장분야
기술, R&D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비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투자비율이 훨씬 높음
산업환경	태동기에 제품혁신 주도

자료: 벤처캐피탈협회(2001)

추가로 기술창업기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기업 규모 면에서는 작지만 지식집약적이고 첨단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기업 성장 속도가 빨라 다른 기업에 비해 고용증가율이 비교적 높다.

기술창업기업 관련 선행연구에 따르면, 기술창업기업은 대부분 지식집약산업에 속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그 특성상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Saemundsson, 1999). 그뿐만 아니라 기술창업기업은 국가 경제활동에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어 국가의 정책, 제도, 법 조직 등에 직·간접적으로 보다 큰 영향을 받는다(안승구 외, 2017).

한편 이러한 창업기업의 성장모형으로 Howard Love의 스타트업 J-커브가 있다. 이 모형은 기업가적 성공을 위한 6단계로 창업 시작, 시제품 출시, 변화와 전환, 비즈니스 최적화, 스케일업, 수익 창출을 제시한다(이현호 외, 2017). 1단계는 아이디어(기회)와 팀을 바탕으로 창업을 시작하는 시기로 상대적으로 자본이 취약하다. 2단계는 시제품을 출시하는 단계로 시장으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시기이다. 3단계는 고객과 시장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제품, 비즈니스 모델을 수정하는 단계이다. 4단계는 비즈니스 모델을 최적화하여 시장에 진

입하는 시기로 자본이 필요한 시기이다. 5단계는 스케일업 단계로 사업성과를 기반으로 본격적으로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이다. 마지막 6단계는 스타트업이 규모화, 조직화되고 비즈니스 모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등 실질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창업기업 성장모형별 각 단계를 정리하면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창업기업(스타트업) 성장모형

구 분	내 용
1단계	창업시작 단계로 팀, 아이디어(기획), 자본을 바탕으로 창업을 시작하는 시기, 상대적으로 자본이 취약
2단계	시제품 출시 단계로 창업 팀이 마켓 테스트를 위해 시제품 출시하고 시장으로부터의 피드백을 받는 시기
3단계	고객 및 시장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제품, 비즈니스 모델을 수정하는 단계, 여러 번의 변화와 전환 과정을 겪는 시기
4단계	비즈니스 모델을 최적화하여 시장에 진입하는 단계, 자본이 필요한 시기
5단계	스케일업 단계로 비즈니스 모델 수립 후 사업성과를 기반으로 본격 성장 도모하는 시기
6단계	수익창출 단계로 스타트업이 조직화, 규모화, 비즈니스 모델 정착 등으로 실질적 수익창출 단계

자료: 이현호 외(2017)를 바탕으로 재구성

III. 국내 창업기업 현황

1. 창업기업 관련 통계

창업기업의 공식 승인통계는 통계청에서 매년 공표하는 「기업생멸행정통계」와 국세청의 「국세통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동향」이 있다. 이들 통계를 각각 살펴보면, 「기업생멸행정통계」는 기업(영리법인)의 신생·소멸과 관련한 변화와 고용 창출 효과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자료, 법인세,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6종의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된 가공통계로, 연도별로 기업 신생률과 소멸률, 신생기업 기준연도까지의 생존율 등을 규모별·산업별로 공표하고 있다. 기업의 창업과 폐업 관련 통계 중 가장 정확하며 국제 비교도 가능하다.

그다음 「국세통계」는 연도별로 기업 신생률과 소멸률, 신생기업의 기준연도까지의 생존율을 규모별·산업별로 공표한다. 국세 신고, 조사 등 기본적인 전수 자료를 국세청에서 집계하며 「국세통계」의 부가가치세 항목에 창업률(신생률)과 폐업률(소멸률) 계상에 필요한 가동사업자, 신규사업자, 폐업자 현황이 제공된다. 마지막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동향」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자료를 기반으로 영리기업을 대상으로 월별 전체 창업기업의 동향 파악을 목적으로 작성된 가공통계이다. 매월 공표되며 작성기준 월로부터 3개월 후라는 짧은 시차로 다른 통계에 비해 비교적 창업기업 동향 파악에서 시의성이 높다.

앞서 언급한 「기업생멸행정통계」와 「국세통계」, 「창업기업동향」은 시군구 단위의 장기 시계열 분석은 불가능하다. 「기업생멸행정통계」와 「창업기업동향」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집계되며, 「국세통계」는 2016년부터 시·군·구 단위로 신규 사업자와 폐업자 현황을 공표하였다. 하지만 시계열 기간이 짧고, 신생률과 소멸률 계상에 사업자 성별, 연령, 업태별 범주화가 불가능하므로 시·군·구 단위의 세밀한 분석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한편 「전국사업체조사」는 매년 통계청을 통해 공표하며 사업체 특성과 구조 등을 파악하여 학술연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통계조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조사하며 공표 시기는 조사기준 연도 이듬해 12월이다. 읍·면·동 직원과 임시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거나 면접조사를 통해 조사한다. 이 같은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창업기업 관련 통계

구 분	기업생멸행정통계	국세통계	창업기업동향	전국사업체조사
목적	기업의 신생, 소멸, 생존율, 고성장 등 기업 생애주기와 고용창출 효과 파악	국세 세목별 세입구조, 실태, 변동 등에 따른 대책수립 등 기초자료 제공	월별 전체 창업기업 업종별·지역별·연령별·성별 동향 파악	사업체 특성 및 구조 파악
조사기준일	직전연도 1월1일~12월31일	직전연도 1월 1일~12월31일	직전연도 1월1일~12월31일	직전연도 12월31일
공표주기	매년(통계청)	매년(국세청)	매월(중소벤처기업부)	매년(통계청)
공표시기	작성기준 연도 익년 12월	작성기준 연도 익년 12월	작성기준 월의 익익월	조사기준 연도 익년 12월
조사방법	국세청이 통계청에 제공한 사업자등록, 부가세, 법인세,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업장현황신고서 6종 행정자료 분석	세무서에서 수집한 국세에 관한 결정·신고·경정·조사·징수 등 기본 전수 자료를 국세청에서 정리 및 집계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자료를 통계청에서 1차 가공하고 DB구축한 후 중기부에서 DB접속 및 통계생산	읍·면·동 직원 및 임시 조사원의 사업체 방문, 면접조사
조사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의 A(농업, 임업 및 어업), O(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T(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U(국제 및 외국기관)와 비영리 및 비활동 제외한 영리법인	내국세 신고·결정·경정·조사·징수 대상자	한국표준산업분류의 O(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T(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 활동), U(국제 및 외국기관)와 사단·재단법인, 학교법인, 농·축·수산·산림 협동조합 등을 제외한 영리법인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개인이 경영하는 농림어업, 국방 및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영업장소가 일정지 않은 간이 판매상을 제외한 모든 사업체
활용범위 (지역, 산업)	(지역) 17개 시·도(광역시·도) (산업) KSIC 중분류(제조업 및 숙박·음식업은 소분류)	(지역) 17개 시·도(일부 시군구) (산업) KSIC 대분류	(지역) 17개 시·도(광역시·도) (산업) KSIC 중분류 (제조업은 임의 소분류)	(지역) 읍면동 단위 (산업) KSIC소분류(읍면동)
비고	·장소 관계없이 국세청 사업자등록 신고한 사업자 포함 ·기초지자체 단위 분석불가	·2015년부터 연2회 조기공개 ·2016년부터 시군단위 신생, 폐업사업자 현황 제공(업종분류 안됨)	·국세청 사업자등록자료 기준으로 창업기업 집계 ·기초지자체 단위 분석불가	·일정 장소에서 유·무형의 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체 ·영업장소가 있고 상주 종사자가 1인 이상 사업장 ·원격접근서비스로 시군구 산업세세분류 단위 분석가능

주: 종사자수의 경우 기업생멸행정통계와 국세통계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인사일용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등재 근로자로 포함하지 않음에 따라 '상용근로자20'를 대상으로 하며, 전국사업체조사는 상시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자료: 기업생멸행정통계, 국세통계, 창업기업동향 통계설명자료

2. 전체 창업기업 현황

전체 창업기업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동향」을 활용하였다. 기초지자체 단위는 활용할 수 없으나, 유일하게 월별로 공표하며 지역별, 연령별, 성별 동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창업 현황을 보다 시의성 있게 파악할 수 있다. 「창업기업동향」을 통해 전체 창업기업 수, 업종별·연령별·지역별 동

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체 창업기업

2016~2021년 전체 창업기업은 2016년 이후 증가를 보이다가 2019년과 2021년에 감소를 보이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전체 창업기업 수는 1,417,973개로 2016년 1,190,177개 대비 227,796개, 약 19.1% 증가하였으며, 2020년 1,484,667개 대비 66,694개, 약 4.5% 감소하였다. 2016~2021년 전체 창업기업 수 현황은 아래 [표 11]과 같다.

[표 11] 2016~2021년 전체 창업기업 수

(단위 : 개)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16년 대비 증가율(%)
전체 창업기업	1,190,177	1,256,267	1,344,366	1,285,259	1,484,667	1,417,973	19.1

자료: 통계청, 창업기업동향

전체 창업기업 중 법인기업(창업)과 개인기업(창업)을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법인기업(창업)은 전체의 약 8.9%를 차지하며 2016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기준 법인기업(창업)은 126,905개로 2016년 96,625개 대비 30,280개, 약 31.3% 증가하였으며, 2020년 123,305개 대비 3,600개, 약 2.9% 증가하였다. 2016~2021년 전체 법인기업(창업) 수 현황은 아래 [표 12]와 같다.

[표 12] 2016~2021년 전체 법인기업(창업) 수

(단위 : 개)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16년 대비 증가율(%)
전체 법인기업(창업)	96,625	97,549	102,372	109,520	123,305	126,905	31.3

자료: 통계청, 창업기업동향

다음으로 개인기업(창업)은 전체의 약 91.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 이후 증가를 보이다가 2019년, 2021년에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기준 개인기업(창업)은 1,291,068개로 2016년 1,093,552개 대비 197,516개, 약 18.1% 증가하였으며, 2020년 1,361,362개 대비 70,294개, 약 5.2% 감소하였다. 2016~2021년 전체 개인기업(창업) 수를 나타내면 아래 [표 13]과 같다.

[표 13] 2016~2021년 전체 개인기업(창업) 수

(단위 : 개)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16년 대비 증가율(%)
전체 개인기업(창업)	1,093,552	1,158,718	1,241,994	1,175,739	1,361,362	1,291,068	18.1

자료: 통계청, 창업기업동향

이를 요약하면 2021년 기준으로 전체 창업기업 수는 2016년 대비 약 19.1% 증가하였다. 전체 법인기업(창업) 수는 2016년 대비 약 31.3% 수준 증가하였으며, 전체 개인기업(창업) 수는 2016년 대비 약 18.1% 증가하였다.

2) 전체 기술기반 창업기업

2016~2021년 전체 기술기반 창업기업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전체 기술기반 창업기업 수는 239,620개로 2016년 190,674개 대비 48,946개, 약 25.7% 증가하였으며, 2020년 228,949개 대비 10,671개, 약 4.7% 증가하였다. 2016~2021년 전체 기술기반 창업기업 수 현황은 아래 [표 14]와 같다.

[표 14] 2016~2021년 전체 기술기반 창업기업 수

(단위 : 개)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16년 대비 증가율(%)
전체 기술기반 창업기업	190,674	198,911	212,237	220,607	228,949	239,620	25.7

자료: 통계청, 창업기업동향

전체 기술기반 창업기업 중 법인기업(창업)과 개인기업(창업)을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술기반 법인기업(창업)은 전체의 약 19.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다. 2021년 기준 기술기반 법인기업(창업)은 46,837개로 2016년 37,102개 대비 9,735개, 약 26.2% 증가하였으며, 2020년 45,236개 대비 1,601개, 약 3.5% 증가하였다. 2016~2021년 전체 기술기반 법인기업(창업) 추이는 아래 [표 15]와 같다.

[표 15] 2016~2021년 기술기반 법인기업(창업) 수

(단위 : 개)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16년 대비 증가율(%)
기술기반 법인기업	37,102	37,652	39,901	41,010	45,236	46,837	26.2

자료: 통계청, 창업기업동향

다음으로 기술기반 개인기업(창업)은 전체의 약 80.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기준 기술기반 개인기업(창업)은 192,783개로 2016년 153,572개 대비 39,211개, 약 25.5% 증가하였으며, 2020년 183,713개 대비 9,070개, 약 4.9% 증가하였다. 2016~2021년 전체 기술기반 개인기업(창업) 추이는 아래 [표 16]과 같다.

[표 16] 2016~2021년 기술기반업종 개인기업(창업) 수

(단위 : 개)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16년 대비 증가율(%)
기술기반 개인기업	153,572	161,259	172,336	179,597	183,713	192,783	25.5

자료: 통계청, 창업기업동향

이를 요약하면 2021년 기준으로 전체 기술기반 창업기업 수는 2016년 대비 약 25.7% 증가하였다. 기술기반 법인기업(창업) 수는 2016년 대비 약 26.2%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전체 개인기업(창업) 수는 2016년 대비 약 25.5% 증가하였다.

3) 업종별 창업기업

창업기업을 업종별로 나누어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부동산업, 기타, 기술창업으로 살펴본다. 2021년 기준으로 도·소매업 425,446개, 숙박·음식점업 161,283개, 개인서비스업 56,120개, 부동산업 317,384개, 기타 218,120개, 기술창업 239,620개 수준이다. 각각의 비중을 살펴보면 도·소매업이 30.0%로 가장 높고 부동산업 22.4%, 기술창업 16.9% 순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업 등의 비중은 63.8%로 전체 창업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소매업은 2021년 425,446개로 2016년 303,493개 대비 121,953개, 약 40.2% 증가하였으며 2020년 390,055개 대비 35,391개, 약 9.1% 증가하였다. 비중을 살펴보면 도·소매업은 2021년 30.0%로 2016년 25.5% 대비 4.5%p 증가하였다. 숙박·음식점업은 2021년 161,283개로 2016년 191,472개 대비 30,189개, 약 15.8% 감소하였으며 2020년 166,548개 대비 5,265개, 약 3.2% 감소하였다. 비중을 살펴보면 숙박·음식점업은 2021년 11.4%로 2016년 16.1% 대비 4.7%p 감소하였다. 개인서비스업은 2021년 56,120개로 2016년 52,042개 대비 4,078개, 약 7.8% 증가하였으며 2020년 53,962개 대비 2,158개, 약 4.0% 증가하였다. 비중을 살펴보면 개인서비스업은 2021년 4.0%로 2016년 4.4% 대비 0.4%p 감소하였다. 부동산업은 2021년 317,384개로 2016년 265,827개 대비 51,557개, 약 19.4% 증가하였으며 2020년 437,853개 대비 120,469개, 약 27.5% 감소하였다. 비중을 살펴보면 부동산업은 2021년 22.4%로 2016년 22.3%와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기타 업종은 2021년 218,120개로 2016년 186,669개 대비 31,451개, 약 16.8% 증가하였으며 2020년 207,300개 대비 10,820개, 약 5.2% 증가하였다. 비중을 살펴보면 기타 업종은 2021년 15.4%로 2016년

15.7% 대비 0.3%p 감소하였다. 기술창업은 2021년 239,620개로 2016년 190,674개 대비 48,946개, 약 25.7% 증가하였으며 2020년 228,949개에 비해 10,671개, 약 4.7% 증가하였다. 비중을 살펴보면 기타 업종은 2021년 16.9%로 2016년 16.0% 대비 0.9%p 증가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2021년 도·소매업, 부동산업, 기술창업 비중은 2016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숙박·음식점, 개인서비스업, 기타 비중은 2016년 대비 감소하였다. 이러한 2016~2021년 업종별 창업기업 수와 비중 현황은 아래 [표 17]과 같다.

[표 17] 2016~2021년 업종별 전체 창업기업 수

(단위 : 개, %)

구 분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부동산업	기타	기술창업	전체창업
2016년 (비중)	303,493 (25.5)	191,472 (16.1)	52,042 (4.4)	265,827 (22.3)	186,669 (15.7)	190,674 (16.0)	1,190,177 (100.0)
2017년 (비중)	303,545 (24.2)	187,221 (14.9)	52,659 (4.2)	304,573 (24.2)	209,358 (16.7)	198,911 (15.8)	1,256,267 (100.0)
2018년 (비중)	308,798 (23.0)	182,788 (13.6)	55,083 (4.1)	366,961 (27.3)	218,499 (16.3)	212,237 (15.8)	1,344,366 (100.0)
2019년 (비중)	333,246 (25.9)	185,116 (14.4)	56,636 (4.4)	279,797 (21.8)	209,857 (16.3)	220,607 (17.2)	1,285,259 (100.0)
2020년 (비중)	390,055 (26.3)	166,548 (11.2)	53,962 (3.6)	437,853 (29.5)	207,300 (14.0)	228,949 (15.4)	1,484,667 (100.0)
2021년 (비중)	425,446 (30.0)	161,283 (11.4)	56,120 (4.0)	317,384 (22.4)	218,120 (15.4)	239,620 (16.9)	1,417,973 (100.0)

자료: 통계청, 창업기업동향

그다음 창업기업 중 법인기업(창업)을 업종별로 나누어 도·소매, 숙박·음식점, 개인서비스, 부동산업, 기타, 기술창업으로 살펴보았다. 2021년 기준으로 도·소매 33,083개, 숙박·음식점 1,688개, 개인서비스 1,002개, 부동산업 20,037개, 기타 24,258개, 기술창업 46,837개 수준이다. 각각의 비중을 살펴보면 기술창업이 36.9%로 가장 높고, 도·소매가 26.1%, 기타 19.1%, 부동산업 15.8% 순으로 나타났다. 그중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부동산업 등의 비중은 43.2%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소매업 법인기업(창업)은 2021년 33,083개로 2016년 28,232개 대비 4,851개, 약 17.2% 증가하였으며 2020년 33,683개 대비 600개, 약 1.8% 감소하였다. 비중을 살펴보면 도·소매업은 2021년 26.1%로 2016년 29.2% 대비 3.1%p 감소하였다. 숙박·음식점업 법인기업(창업)은 2021년 1,688개로 2016년 1,364개 대비 324개, 약 23.8% 증가하였으며 2020년 1,644개 대비 44개, 약 2.7% 증가하였다. 비중을 살펴보면 숙박·음식점업은 2021년 1.3%로 2016년 1.4% 대비 0.1%p 감소하였다. 개인서비스업 법인기업(창업)은 2021년 1,002개로 2016년 1,480개 대비 478개, 약 32.3% 감소하였으며 2020년 1,075개 대비 73개, 약 6.8% 감소하였다. 비중을 살펴보면 개인서비스업은 2021년 0.8%로 2016년 1.5% 대비 0.7%p 감소하였다. 부동산업 법인기업(창업)은 2021년 20,037개로 2016년 9,691개 대비 10,346개, 약 106.8% 증가하였으며 2020년 18,809개 대비 1,228개, 약 6.5% 증가하였다. 비중을 살펴보면 부동산업은 2021년 15.8%로 2016년 10.0% 대비 5.8%p 증가하였다. 기타 업종 법인기업(창업)은 2021년 24,258개로 2016년 18,756개 대비 5,502개, 약 29.3% 증가하였으며 2020년

22,858개 대비 1,400개, 약 6.1% 증가하였다. 비중을 살펴보면 기타 업종은 2021년 19.1%로 2016년 19.4% 대비 0.3%p 감소하였다. 기술창업 법인기업(창업)은 2021년 46,837개로 2016년 37,102개 대비 9,735개, 약 26.2% 증가하였으며 2020년 45,236개 대비 1,601개, 약 3.5% 증가하였다. 비중을 살펴보면 기술창업은 2021년 36.9%로 2016년 38.4% 대비 1.5%p 감소하였다. 2016~2021년 업종별 법인기업(창업) 수와 비중 현황은 아래 [표 18]과 같다.

[표 18] 2016~2021년 업종별 법인기업(창업) 수

(단위 : 개, %)

구 분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부동산업	기타	기술창업	전체창업
2016년 (비중)	28,232 (29.2)	1,364 (1.4)	1,480 (1.5)	9,691 (10.0)	18,756 (19.4)	37,102 (38.4)	96,625 (100.0)
2017년 (비중)	26,575 (27.2)	1,481 (1.5)	1,184 (1.2)	9,691 (9.9)	20,966 (21.5)	37,652 (38.6)	97,549 (100.0)
2018년 (비중)	27,251 (26.6)	1,715 (1.7)	1,349 (1.3)	10,228 (10.0)	21,928 (21.4)	39,901 (39.0)	102,372 (100.0)
2019년 (비중)	29,166 (26.6)	1,754 (1.6)	1,184 (1.1)	14,754 (13.5)	21,652 (19.8)	41,010 (37.4)	109,520 (100.0)
2020년 (비중)	33,683 (27.3)	1,644 (1.3)	1,075 (0.9)	18,809 (15.3)	22,858 (18.5)	45,236 (36.7)	123,305 (100.0)
2021년 (비중)	33,083 (26.1)	1,688 (1.3)	1,002 (0.8)	20,037 (15.8)	24,258 (19.1)	46,837 (36.9)	126,905 (100.0)

자료: 통계청, 창업기업동향

그다음 창업기업 중 개인기업(창업)을 업종별로 나누어 도·소매, 숙박·음식점, 개인서비스, 부동산업, 기타, 기술창업으로 살펴보았다. 2021년 기준으로 도·소매 392,363개, 숙박·음식점 159,595개, 개인서비스 55,118개, 부동산업 297,347개, 기타 193,862개, 기술창업 192,783개 수준이다. 각각의 비중을 살펴보면 도·소매업 30.4%로 가장 높고, 부동산업 23.0%, 기타 15.0%, 기술창업 14.9%, 숙박·음식점업 12.4% 순이다. 그중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부동산업 등의 비중은 65.8%로 개인 창업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소매업 개인기업(창업)은 2021년 392,363개로 2016년 275,261개 대비 117,102개, 약 42.5% 증가하였으며 2020년 356,372개 대비 35,991개, 약 10.1% 증가하였다. 비중을 살펴보면 도·소매업은 2021년 30.4%로 2016년 25.2% 대비 5.2%p 증가하였다. 숙박·음식점업 개인기업(창업)은 2021년 159,595개로 2016년 190,108개 대비 30,513개, 약 16.1% 감소하였으며 2020년 164,904개 대비 5,309개, 약 3.2% 감소하였다. 비중을 살펴보면 숙박·음식점업은 2021년 12.4%로 2016년 17.4% 대비 5.0%p 감소하였다. 개인서비스업 개인기업(창업)은 2021년 55,118개로 2016년 50,562개 대비 4,556개, 약 9.0% 증가하였으며 2020년 52,887개 대비 2,231개, 약 4.2% 증가하였다. 비중을 살펴보면 개인서비스업은 2021년 4.3%로 2016년 4.6% 대비 0.3%p 감소하였다. 부동산업 개인기업(창업)은 2021년 297,347개로 2016년 256,136개 대비 41,211개, 약 16.1% 증가하였으며 2020년 419,044개 대비 121,697개, 약 29.0% 감소하였다. 비중을 살펴보면 부동산업은 2021년 23.0%로 2016년 23.4% 대비 0.4%p 감소하였다. 기타업종 개인기업(창업)은 2021년 193,862개로 2016년 167,913개

대비 25,949개, 약 15.5% 증가하였으며 2020년 184,442개 대비 9,420개, 약 5.1% 증가하였다. 비중을 살펴보면 기타 업종은 2021년 15.0%로 2016년 15.4% 대비 0.4%p 감소하였다. 기술창업 개인기업(창업)은 2021년 192,783개로 2016년 153,572개 대비 39,211개, 약 25.5% 증가하였으며 2020년 183,713개 대비 9,070개, 약 4.9% 증가하였다. 비중을 살펴보면 기술창업은 2021년 14.9%로 2016년 14.0% 대비 0.9%p 증가하였다. 이러한 2016~2021년 업종별 개인기업(창업) 수와 비중 현황은 아래 [표 19]와 같다.

[표 19] 2016~2021년 업종별 개인기업(창업) 수

(단위 : 개, %)

구 분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부동산업	기타	기술창업	전체창업
2016년 (비중)	275,261 (25.2)	190,108 (17.4)	50,562 (4.6)	256,136 (23.4)	167,913 (15.4)	153,572 (14.0)	1,093,552 (100.0)
2017년 (비중)	276,970 (23.9)	185,740 (16.0)	51,475 (4.4)	294,882 (25.5)	188,392 (16.3)	161,259 (13.9)	1,158,718 (100.0)
2018년 (비중)	281,547 (22.7)	181,073 (14.6)	53,734 (4.3)	356,733 (28.7)	196,571 (15.8)	172,336 (13.9)	1,241,994 (100.0)
2019년 (비중)	304,080 (25.9)	183,362 (15.6)	55,452 (4.7)	265,043 (22.5)	188,205 (16.0)	179,597 (15.3)	1,175,739 (100.0)
2020년 (비중)	356,372 (26.2)	164,904 (12.1)	52,887 (3.9)	419,044 (30.8)	184,442 (13.5)	183,713 (13.5)	1,361,362 (100.0)
2021년 (비중)	392,363 (30.4)	159,595 (12.4)	55,118 (4.3)	297,347 (23.0)	193,862 (15.0)	192,783 (14.9)	1,291,068 (100.0)

자료: 통계청, 창업기업동향

기술기반 업종 창업기업을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아래 [표 20]과 같다. 기술창업 분야 전체 기업 수는 2021년 239,620개로 2018년 212,237개 대비 27,383개, 약 12.9% 증가했으며 2020년 228,949개에 비해 10,671개, 약 4.7% 증가하였다.

먼저 제조업은 2021년 47,989개로 2018년 57,325개 대비 9,336개, 약 16.3% 감소하였으며 2020년 49,928개 대비 1,939개, 약 3.9% 감소하였다. 비중을 살펴보면 제조업은 2021년 20.0%로 2018년 27.0% 대비 7.0%p 감소하였다. 정보통신업은 2021년 45,578개로 2018년 28,751개 대비 16,827개, 약 58.5% 증가하였으며, 2020년 36,760개에 비해 8,818개, 약 24.0% 수준 증가하였다. 비중을 보면 정보통신업은 2021년 19.0%로 2018년 13.5% 대비 5.5%p 증가하였다. 전문·과학·기술업은 2021년 65,134개로 2018년 40,455개 대비 24,679개, 약 61.0% 증가하였으며 2020년 54,411개에 비해 10,723개, 약 19.7% 수준 증가하였다. 비중을 살펴보면 전문·과학·기술업은 2021년 27.2%로 2018년 19.1% 대비 8.1%p 증가하였다. 사업지원업은 2021년 27,992개로 2018년 31,401개 대비 3,409개, 약 10.9% 감소하였으며 2020년 36,906개에 비해 8,914개, 약 24.2% 수준 감소하였다. 비중을 보면 사업지원업은 2021년 11.7%로 2018년 14.8% 대비 3.1%p 감소하였다. 교육업은 2021년 40,793개로 2018년 41,126개 대비 333개, 약 0.8% 감소하였으며 2020년 39,056개에 비해 1,737개, 약 4.4% 수준 증가하였다. 비중을 보면 교육업은 2021년 17.0%로 2018년 19.4% 대비 2.4%p 감소하였다. 보건·사회·복지업은 2021년 5,094개로 2018년 6,184개 대비 1,090개, 약 17.6% 감소하였으며 2020년 4,939개에 비해 155개, 약 3.1% 증가하였다. 비중을 보면 보건·사회·복지업은 2021년 2.1%로 2018년 2.9% 대비 0.8%p 감소하였다. 창작·예

술·여가업은 2021년 7,040개로 2018년 6,995개 대비 45개, 약 0.6% 증가하였으며 2020년 6,949개에 비해 91개, 약 1.3% 증가하였다. 비중을 보면 창작·예술·여가업은 2021년 2.9%로 2018년 3.3% 대비 0.4%p 감소하였다. 기술창업의 세부 업종별 창업 수는 아래 [표 20]과 같다.

[표 20] 2018~2021년 기술기반업종 업종별 창업기업 수

(단위 : 개, %)

구 분	제조업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사업지원	교육	보건·사회복지	창작·예술·여가	기술창업
2018년 (비중)	57,325 (27.0)	28,751 (13.5)	40,455 (19.1)	31,401 (14.8)	41,126 (19.4)	6,184 (2.9)	6,995 (3.3)	212,237 (100.0)
2019년 (비중)	52,317 (23.7)	30,336 (13.8)	46,413 (21.0)	35,952 (16.3)	42,864 (19.4)	5,527 (2.5)	7,198 (3.3)	220,607 (100.0)
2020년 (비중)	49,928 (21.8)	36,760 (16.1)	54,411 (23.8)	36,906 (16.1)	39,056 (17.1)	4,939 (2.2)	6,949 (3.0)	228,949 (100.0)
2021년 (비중)	47,989 (20.0)	45,578 (19.0)	65,134 (27.2)	27,992 (11.7)	40,793 (17.0)	5,094 (2.1)	7,040 (2.9)	239,620 (100.0)

자료: 통계청, 창업기업동향

이를 요약하면 창업기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기술창업은 증가하였고, 숙박·음식점, 부동산업은 감소한 모양새를 보인다. 창업기업 중 기술창업 분야의 경우, 2020년에 비해 2021년에 10,671개, 약 4.7% 증가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제조업, 사업지원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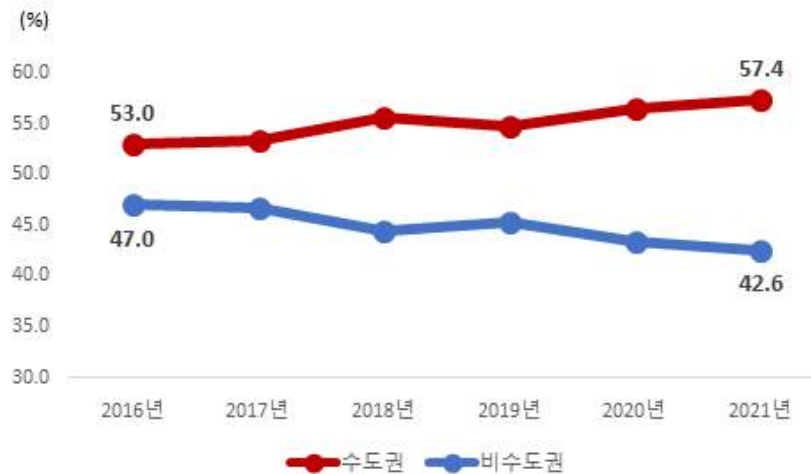
4) 지역별 창업기업

창업기업을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2021년 기준으로 서울 276,758개, 부산 82,845개, 대구 53,211개, 인천 96,818개, 광주 35,615개, 대전 35,500개, 울산 21,939개, 경기 440,584개, 강원 38,080개, 충북 39,195개, 충남 57,188개, 세종 9,420개, 전북 41,813개, 전남 41,687개, 경북 56,457개, 경남 70,679개, 제주 20,184개 수준으로 나타났다.

비중을 보면 경기도가 31.1%로 가장 높고, 서울이 19.5%, 인천 6.8%, 부산 5.8%, 경남 5.0% 순으로 나타났다. 그중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의 비중은 57.4%로 전체 창업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어 지역별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먼저 수도권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 53.0%, 2017년 53.3%, 2018년 55.6%, 2019년 54.8%, 2020년 56.5%, 2021년 57.4%로 점차 증가하였으며 2021년 기준 2016년 대비 4.5%p 증가하였다. 비수도권 비중을 살펴보면 2016년 47.0%, 2017년 46.7%, 2018년 44.4%, 2019년 45.2%, 2020년 43.5%, 2021년 42.6%로 점차 감소하였으며, 2021년 기준 2016년 대비 4.5%p 감소하였다.

[그림 1] 2016~2021년 수도권과 비수도권 창업기업 비중 추이



수도권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서울은 2021년 276,758개로 2016년 240,617개 대비 36,141개, 약 15.0% 증가하였으며, 2020년 309,896개에 비해 33,138개, 약 10.7% 감소하였다. 비중을 보면 서울은 2021년 19.5%로 2016년 20.2% 대비 0.7%p 감소하였다. 그다음 경기도는 2021년 440,584개로 2016년 321,234개 대비 119,350개, 약 37.2% 증가하였으며, 2020년 431,992개에 비해 8,592개, 약 2.0% 증가하였다. 비중을 보면 경기도는 2021년 31.1%로 2016년 27.0% 대비 4.1%p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천은 2021년 96,818개로 2016년 68,527개 대비 28,291개, 약 41.3% 증가하였으며, 2020년 97,059개에 비해 241개, 약 0.2% 감소하였다. 비중을 보면 인천은 2021년 6.8%로 2016년 5.8% 대비 1.1%p 증가하였다.

비수도권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산은 2021년 82,845개로 2016년 72,442개 대비 10,403개, 약 14.4% 증가하였으며, 2020년 86,597개에 비해 3,752개, 약 4.3% 감소하였다. 비중을 보면 부산은 2021년 5.8%로 2016년 6.1% 대비 0.2%p 감소하였다. 대구는 2021년 53,211개로 2016년 49,924개 대비 3,287개, 약 6.6% 증가하였으며, 2020년 55,782개에 비해 2,571개, 약 4.6% 수준 감소하였다. 비중을 보면 대구는 2021년 3.8%로 2016년 4.2% 대비 0.4%p 감소하였다. 광주는 2021년 35,615개로 2016년 31,763개 대비 3,852개, 약 12.1% 증가하였으며, 2020년 39,333개에 비해 3,718개, 약 9.5% 감소하였다. 비중을 보면 광주는 2021년 2.5%로 2016년 2.7% 대비 0.2%p 감소하였다. 대전은 2021년 35,500개로 2016년 31,063개 대비 4,437개, 약 14.3% 증가하였으며, 2020년 39,330개에 비해 3,830개, 약 9.7% 감소하였다. 비중을 보면 대전은 2021년 2.5%로 2016년 2.6% 대비 0.1%p 감소하였다. 울산은 2021년 21,939개로 2016년 24,499개 대비 2,560개, 약 10.4% 감소하였으며, 2020년 25,388개에 비해 3,449개, 약 13.6% 감소하였다. 비중을 보면 울산은 2021년 1.5%로 2016년 2.1% 대비 0.5%p 감소하였다. 강원은 2021년 38,080개로 2016년 34,694개 대비 3,386개, 약 9.8% 증가하였으며, 2020년 41,330개에 비해 3,250개, 약 7.9% 감소하였다. 비중을 보면 강원은 2021년 2.7%로 2016년 2.9% 대비 0.2%p 감소하였다. 충북은 2021년 39,195개로 2016년 34,382개 대비 4,813개, 약 14.0% 증가하였으며, 2020년 40,749개에 비해

1,554개, 약 3.8% 감소하였다. 비중을 보면 충북은 2021년 2.8%로 2016년 2.9% 대비 0.1%p 감소하였다. 충남은 2021년 57,188개로 2016년 46,162개 대비 11,026개, 약 23.9% 증가하였으며, 2020년 58,116개에 비해 928개, 약 1.6% 감소하였다. 비중을 보면 충북은 2021년 4.0%로 2016년 3.9% 대비 0.2%p 증가하였다. 세종은 2021년 9,420개로 2016년 9,562개 대비 142개, 약 1.5% 감소하였으며, 2020년 10,555개에 비해 1,135개, 약 10.8% 감소하였다. 비중을 보면 세종은 2021년 0.7%로 2016년 0.8% 대비 0.1%p 감소하였다. 전북은 2021년 41,813개로 2016년 37,040개 대비 4,773개, 약 12.9% 증가하였으며, 2020년 46,748개에 비해 4,935개, 약 10.6% 감소하였다. 비중을 보면 전북은 2021년 2.9%로 2016년 3.1% 대비 0.2%p 감소하였다. 전남은 2021년 41,687개로 2016년 37,526개 대비 4,161개, 약 11.1% 증가하였으며, 2020년 46,390개에 비해 4,703개, 약 10.1% 감소하였다. 비중을 보면 전남은 2021년 2.9%로 2016년 3.2% 대비 0.2%p 감소하였다. 경북은 2021년 56,457개로 2016년 54,948개 대비 1,509개, 약 2.7% 증가하였으며, 2020년 58,749개에 비해 2,292개, 약 3.9% 감소하였다. 비중을 보면 경북은 2021년 4.0%로 2016년 4.6% 대비 0.6%p 감소하였다. 경남은 2021년 70,679개로 2016년 74,318개 대비 3,639개, 약 4.9% 감소하였으며, 2020년 75,084개에 비해 4,405개, 약 5.9% 감소하였다. 비중을 보면 경남은 2021년 5.0%로 2016년 6.2% 대비 1.3%p 감소하였다. 제주는 2021년 20,184개로 2016년 21,476개 대비 1,292개, 약 6.0% 감소하였으며, 2020년 21,569개에 비해 1,385개, 약 6.4% 감소하였다. 비중을 보면 제주는 2021년 1.4%로 2016년 1.8% 대비 0.4%p 감소하였다. 지역별 창업기업 추이를 세부적으로 나타내면 아래 [표 21]과 같다.

[표 21] 지역별 창업기업 추이

(단위 : 개, %)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2016년 (비중)	240,617 (20.2)	72,442 (6.1)	49,924 (4.2)	68,527 (5.8)	31,763 (2.7)	31,063 (2.6)	24,499 (2.1)	321,234 (27.0)	34,694 (2.9)
2017년 (비중)	249,581 (19.9)	75,142 (6.0)	50,295 (4.0)	75,594 (6.0)	33,377 (2.7)	31,953 (2.5)	24,833 (2.0)	344,860 (27.5)	35,629 (2.8)
2018년 (비중)	289,280 (21.5)	75,496 (5.6)	51,313 (3.8)	79,350 (5.9)	35,627 (2.7)	32,967 (2.5)	23,080 (1.7)	378,899 (28.2)	36,335 (2.7)
2019년 (비중)	262,970 (20.5)	74,132 (5.8)	51,445 (4.0)	79,719 (6.2)	35,065 (2.7)	33,628 (2.6)	22,760 (1.8)	361,001 (28.1)	35,468 (2.8)
2020년 (비중)	309,896 (20.9)	86,597 (5.8)	55,782 (3.8)	97,059 (6.5)	39,333 (2.6)	39,330 (2.6)	25,388 (1.7)	431,992 (29.1)	41,330 (2.8)
2021년 (비중)	276,758 (19.5)	82,845 (5.8)	53,211 (3.8)	96,818 (6.8)	35,615 (2.5)	35,500 (2.5)	21,939 (1.5)	440,584 (31.1)	38,080 (2.7)
구 분	충북	충남	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2016년 (비중)	34,382 (2.9)	46,162 (3.9)	9,562 (0.8)	37,040 (3.1)	37,526 (3.2)	54,948 (4.6)	74,318 (6.2)	21,476 (1.8)	1,190,177 (100.0)
2017년 (비중)	34,656 (2.8)	49,836 (4.0)	10,392 (0.8)	45,253 (3.6)	42,683 (3.4)	56,951 (4.5)	73,530 (5.9)	21,702 (1.7)	1,256,267 (100.0)
2018년 (비중)	35,704 (2.7)	51,567 (3.8)	9,737 (0.7)	48,441 (3.6)	45,682 (3.4)	57,272 (4.3)	71,525 (5.3)	22,091 (1.6)	1,344,366 (100.0)
2019년 (비중)	36,830 (2.9)	51,032 (4.0)	8,846 (0.7)	44,073 (3.4)	42,854 (3.3)	56,002 (4.4)	69,496 (5.4)	19,938 (1.6)	1,285,259 (100.0)
2020년 (비중)	40,749 (2.7)	58,116 (3.9)	10,555 (0.7)	46,748 (3.1)	46,390 (3.1)	58,749 (4.0)	75,084 (5.1)	21,569 (1.5)	1,484,667 (100.0)
2021년 (비중)	39,195 (2.8)	57,188 (4.0)	9,420 (0.7)	41,813 (2.9)	41,687 (2.9)	56,457 (4.0)	70,679 (5.0)	20,184 (1.4)	1,417,973 (100.0)

자료: 통계청, 창업기업동향

5) 대표자 연령별 창업기업

창업기업을 대표자 연령별로 나누어 30세 미만,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으로 살펴보았다. 2021년 기준으로 30세 미만 183,956개, 30대 327,431개, 40대 382,474개, 50대 326,261개, 60대 이상 195,678개를 보이고 있다. 비중을 보면 40대가 27.0%로 가장 높고, 30대 23.1%, 50대 23.0% 순으로 나타났다. 그중 30세 미만과 30대는 청년층으로 이들의 비중은 36.1%를 차지하고 있다. 대표자 연령별 창업 현황을 살펴보면, 청년층 창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연령별 창업기업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년층(39세 이하)은 2021년 511,387개로 2016년 410,222개 대비 101,165개, 약 24.7% 증가하였으며 2020년 490,512개에 비해 20,875개, 약 4.3% 감소하였다. 비중을 보면 청년층 창업은 2021년 36.1%로 2016년 34.5% 대비 1.6%p 증가하였다.

40대는 2021년 382,474개로 2016년 367,084개 대비 15,390개, 약 4.2% 증가하였으나 2020년 391,010개에 비해 8,536개, 약 2.2% 감소하였다. 비중을 보면 청년층 창업은 2021년 27.0%로 2016년 30.8% 대비 3.9%p 감소하였다.

50대는 2021년 326,261개로 2016년 289,138개 대비 37,123개, 약 12.8% 증가하였으나 2020년 361,259개에 비해 34,998개, 약 9.7% 감소하였다. 비중을 보면 50대 창업기업은 2021년 23.0%로 2016년 24.3% 대비 1.3%p 감소하였다.

60대 이상은 2021년 195,678개로 2016년 122,484개 대비 73,194개, 약 59.8% 증가하였으며, 2020년 240,438개에 비해 44,760개, 약 18.6% 감소하였다. 비중을 보면 60대 이상 창업기업은 2021년 13.8%로 2016년 10.3% 대비 3.5%p 증가하였다. 연령별 창업기업 수는 아래 [표 22]와 같다.

[표 22] 연령별 창업기업 수

(단위 : 개, %)

구 분		30세 미만	30대	청년층(39세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2016년 (비중)	116,815 (9.8)	293,407 (24.7)	410,222 (34.5)	367,084 (30.8)	289,138 (24.3)	122,484 (10.3)
	2017년 (비중)	128,808 (10.3)	297,162 (23.7)	425,970 (33.9)	376,529 (30.3)	308,560 (24.6)	143,950 (11.5)
	2018년 (비중)	138,933 (10.3)	303,671 (22.6)	442,604 (32.9)	387,868 (28.9)	339,633 (25.3)	172,794 (12.9)
	2019년 (비중)	146,766 (11.4)	293,522 (22.8)	440,288 (34.3)	355,567 (27.7)	313,768 (24.4)	174,152 (13.5)
	2020년 (비중)	174,728 (11.8)	315,784 (21.3)	490,512 (33.0)	391,010 (26.3)	361,259 (24.3)	240,438 (16.2)
	2021년 (비중)	183,956 (13.0)	327,431 (23.1)	511,387 (36.1)	382,474 (27.0)	326,261 (23.0)	195,678 (13.8)

자료: 통계청, 창업기업동향

그다음 연령별 창업기업 중 법인기업을 살펴보았다. 연령별 창업 법인기업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으로 30세 미만 9,467개, 30대 26,734개, 40대 41,380개, 50대 32,347개, 60대 이상 15,626개를 보이고 있

다. 비중을 보면 40대가 32.6%로 가장 높고, 50대 25.5%, 30대 21.1%, 60대 이상 12.3% 순으로 나타났다. 그중 30세 미만과 30대는 청년층으로 이들의 비중은 28.5%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 창업기업(법인)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0세 미만은 2021년 9,467개로 2016년 6,396개 대비 3,071개, 약 48.0% 증가하였으며, 2020년 9,093개에 비해 374개, 약 4.1% 증가하였다. 비중을 보면 30세 미만 창업기업(법인)은 2021년 7.5%로 2016년 6.6% 대비 0.8%p 증가하였다.

30대는 2021년 26,734개로 2016년 21,222개 대비 5,512개, 약 26.0% 증가하였으며, 2020년 26,434개에 비해 300개, 약 1.1% 증가하였다. 비중을 보면 30대 창업기업(법인)은 2021년 21.1%로 2016년 22.0% 대비 0.9%p 감소하였다.

40대는 2021년 41,380개로 2016년 35,436개 대비 5,944개, 약 16.8% 증가하였으며, 2020년 40,866개에 비해 514개, 약 1.3% 증가하였다. 비중을 보면 40대 창업기업(법인)은 2021년 32.6%로 2016년 36.7% 대비 4.1%p 감소하였다.

50대는 2021년 32,347개로 2016년 24,623개 대비 7,724개, 약 31.4% 증가하였으며, 2020년 31,601개에 비해 746개, 약 2.4% 증가하였다. 비중을 보면 50대 창업기업(법인)은 2021년 25.5%로 2016년 25.5% 대비 변화가 없었다.

60대 이상은 2021년 15,626개로 2016년 8,185개 대비 7,441개, 약 90.9% 증가하였으며, 2020년 14,534개에 비해 1,092개, 약 7.5% 증가하였다. 비중을 보면 60대 창업기업(법인)은 2021년 12.3%로 2016년 8.5% 대비 3.8%p 증가하였다. 연령별 법인기업(창업) 추이는 아래 [표 23]과 같다.

[표 23] 연령별 법인기업(창업) 수

(단위 : 개, %)

구 분	30세 미만	30대	청년층(39세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2016년 (비중)	6,396 (6.6)	21,222 (22.0)	27,618 (28.6)	35,436 (36.7)	24,623 (25.5)	8,185 (8.5)
2017년 (비중)	6,403 (6.6)	20,655 (21.2)	27,058 (27.7)	35,003 (35.9)	25,446 (26.1)	9,304 (9.5)
2018년 (비중)	7,128 (7.0)	22,022 (21.5)	29,150 (28.5)	35,294 (34.5)	26,669 (26.1)	10,336 (10.1)
2019년 (비중)	8,184 (7.5)	23,437 (21.4)	31,621 (28.9)	36,678 (33.5)	28,140 (25.7)	12,097 (11.0)
2020년 (비중)	9,093 (7.4)	26,434 (21.4)	35,527 (28.8)	40,866 (33.1)	31,601 (25.6)	14,534 (11.8)
2021년 (비중)	9,467 (7.5)	26,734 (21.1)	36,201 (28.5)	41,380 (32.6)	32,347 (25.5)	15,626 (12.3)

자료: 통계청, 창업기업동향

그다음 연령별 창업기업 중 개인기업을 살펴보았다. 연령별 개인기업(창업)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으로 30세 미만 174,489개, 30대 300,697개, 40대 341,094개, 50대 293,914개, 60대 이상 180,052개를 보이고 있다. 비중을 보면 40대가 26.4%로 가장 높고, 30대 23.3%, 50대 22.8% 순으로 나타났다. 그중 30세 미만과 30대는 청년층으로 이들의 비중은 36.8%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 개인기업(창업)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0세 미만은 2021년 174,489개로 2016년 110,419개 대비 64,070개, 약 58.0% 증가하였으며, 2020년 165,635개에 비해 8,854개, 약 5.3% 증가하였다. 비중을 보면 30세 미만 창업기업(개인)은 2021년 13.5%로 2016년 10.1% 대비 3.4%p 증가하였다.

30대는 2021년 300,697개로 2016년 272,185개 대비 28,512개, 약 10.5% 증가하였으며, 2020년 289,350개에 비해 11,347개, 약 3.9% 증가하였다. 비중을 보면 30대 창업기업(개인)은 2021년 23.3%로 2016년 24.9% 대비 1.6%p 감소하였다.

40대는 2021년 341,094개로 2016년 331,648개 대비 9,446개, 약 2.8% 증가하였으며, 2020년 350,144개에 비해 9,050개, 약 2.6% 감소하였다. 비중을 보면 40대 창업기업(개인)은 2021년 26.4%로 2016년 30.3% 대비 3.9%p 감소하였다.

50대는 2021년 293,914개로 2016년 264,515개 대비 29,399개, 약 11.1% 증가하였으며, 2020년 329,658개에 비해 35,744개, 약 10.8% 감소하였다. 비중을 보면 50대 창업기업(개인)은 2021년 22.8%로 2016년 24.2% 대비 1.4%p 감소하였다.

60대 이상은 2021년 180,052개로 2016년 114,299개 대비 65,753개, 약 57.5% 증가하였으며, 2020년 225,904개에 비해 45,852개, 약 20.3% 감소하였다. 비중을 보면 60대 이상 창업기업(개인)은 2021년 13.9%로 2016년 10.5% 대비 3.5%p 증가하였다.

연령별 창업기업 중 개인기업 추이는 아래 [표 24]와 같다.

[표 24] 연령별 개인기업(창업) 수

(단위 : 개, %)

구 분	30세 미만	30대	청년층(39세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2016년 (비중)	110,419 (10.1)	272,185 (24.9)	382,604 (35.0)	331,648 (30.3)	264,515 (24.2)	114,299 (10.5)
2017년 (비중)	122,405 (10.6)	276,507 (23.9)	398,912 (34.4)	341,526 (29.5)	283,114 (24.4)	134,646 (11.6)
2018년 (비중)	131,805 (10.6)	281,649 (22.7)	413,454 (33.3)	352,574 (28.4)	312,964 (25.2)	162,458 (13.1)
2019년 (비중)	138,582 (11.8)	270,085 (23.0)	408,667 (34.8)	318,889 (27.1)	285,628 (24.3)	162,055 (13.8)
2020년 (비중)	165,635 (12.2)	289,350 (21.3)	454,985 (33.4)	350,144 (25.7)	329,658 (24.2)	225,904 (16.6)
2021년 (비중)	174,489 (13.5)	300,697 (23.3)	475,186 (36.8)	341,094 (26.4)	293,914 (22.8)	180,052 (13.9)

자료: 통계청, 창업기업동향

그다음 기술창업기업을 연령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연령별 기술창업기업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으로 30세 미만 28,128개, 30대 61,620개, 40대 75,386개, 50대 51,442개, 60대 이상 22,746개를 보이고 있다. 비중을 보면 40대가 31.5%로 가장 높고, 30대 25.7%, 50대 21.5%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30세 미만과 30대는 청년층으로 이들의 비중은 37.5%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 기술창업기업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0세 미만은 2021년 28,128개로 2016년 18,789개 대비 9,339개, 약 49.7% 증가하였으나, 2020년 28,852개에 비해 724개, 약 2.5% 감소하였다. 비중을 보면 30세 미만은 2021년 11.7%로 2016년 9.9%

대비 1.9%p 증가하였다.

30대는 2021년 61,620개로 2016년 57,218개 대비 4,402개, 약 7.7% 증가하였으며, 2020년 60,366개에 비해 1,254개, 약 2.1% 증가하였다. 비중을 보면 30대는 2021년 25.7%로 2016년 30.0% 대비 4.3%p 감소하였다.

40대는 2021년 75,386개로 2016년 64,427개 대비 10,959개, 약 17.0% 증가하였으며, 2020년 70,027개에 비해 5,359개, 약 7.7% 증가하였다. 비중을 보면 40대는 2021년 31.5%로 2016년 33.8% 대비 2.3%p 감소하였다.

50대는 2021년 51,442개로 2016년 38,159개 대비 13,283개, 약 34.8% 증가하였으며, 2020년 48,101개에 비해 3,341개, 약 6.9% 증가하였다. 비중을 보면 50대는 2021년 21.5%로 2016년 20.0% 대비 1.5%p 증가하였다.

60대 이상은 2021년 22,746개로 2016년 11,847개 대비 10,899개, 약 92.0% 증가하였으며, 2020년 21,383개에 비해 1,363개, 약 6.4% 증가하였다. 비중을 보면 60대 이상은 2021년 9.5%로 2016년 6.2% 대비 3.3%p 증가하였다.

연령별 기술창업기업 수 추이는 아래 [표 25]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25] 연령별 창업기업 수(기술창업)

(단위 : 개, %)

구 분		30세 미만	30대	청년층(39세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기술창업	2016년 (비중)	18,789 (9.9)	57,218 (30.0)	76,007 (39.9)	64,427 (33.8)	38,159 (20.0)	11,847 (6.2)
	2017년 (비중)	20,586 (10.3)	57,812 (29.1)	78,398 (39.4)	65,949 (33.2)	40,390 (20.3)	13,899 (7.0)
	2018년 (비중)	22,308 (10.5)	59,573 (28.1)	81,881 (38.6)	69,873 (32.9)	44,140 (20.8)	16,042 (7.6)
	2019년 (비중)	24,985 (11.3)	61,697 (28.0)	86,682 (39.3)	69,740 (31.6)	45,773 (20.7)	18,109 (8.2)
	2020년 (비중)	28,852 (12.6)	60,366 (26.4)	89,218 (39.0)	70,027 (31.6)	48,101 (20.7)	21,383 (8.2)
	2021년 (비중)	28,128 (11.7)	61,620 (25.7)	89,748 (37.5)	75,386 (31.5)	51,442 (21.5)	22,746 (9.5)

자료: 통계청, 창업기업동향

IV. 고양특례시 창업기업 현황 분석

시군구 단위 분석을 위해 정확성과 시의성을 고려하여 「국세통계」를 활용하였다. 「국세통계」는 연도별로 기업 신생률과 소멸률, 신생기업의 기준연도까지의 생존율을 규모별·산업별로 공표한다. 국세에 대한 신고, 조사 등 기본적인 전수 자료를 국세청에서 집계하며 「국세통계」의 부가가치세 항목에 창업률(신생률)과 폐업률(소멸률) 계상에 필요한 가동사업자, 신규사업자, 폐업자 현황을 제공하고 있다.

1. 고양특례시 창업기업 현황

1) 창업기업 추이

국세통계에서 2016년부터 시·군·구 창업·폐업 사업자 수를 공표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토대로 최근 6년간 전국, 고양특례시의 관련 통계 추이를 비교하였다.

고양특례시 전체 창업기업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2019년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증가하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고양특례시 전체 창업기업은 총 41,714개 수준을 보인다. 기업형태별로 살펴보면 개인기업이 38,990개이며, 법인기업은 2,724개로, 전체 창업기업 대비 개인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3.5%, 법인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이다. 고양특례시 창업기업은 2016년 이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인다.

전체 창업기업 증가율을 살펴보면 2016년 대비 14,538개, 약 53.5% 증가하였으며 2020년 대비 5,748개, 약 16.0% 증가하였다. 고양특례시 전체 창업기업 추이는 아래 [표 26]과 같다.

[표 26] 고양특례시 전체 창업기업

(단위 : 개)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16년 대비 증가율(%)
전체 창업기업	27,176	26,506	32,799	27,798	35,966	41,714	53.5

자료: 국세통계

고양특례시 법인기업(창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1년 기준 법인기업(창업) 수는 2,724개 수준으로 2016년 2,551개 대비 173개, 약 6.8% 증가하였으며 2020년 2,608개 대비 116개, 약 4.4% 증가하였다. 비중을 살펴보면 고양특례시 전체 창업기업의 7.0% 수준이며 2016년 10.4%에 비해 3.4%p 감소하였다. 고양특례시 법인기업(창업) 추이는 아래 [표 27]과 같다.

[표 27] 고양특례시 법인기업(창업)

(단위 : 개)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16년 대비 증가율(%)
법인기업	2,551	2,590	2,441	2,422	2,608	2,724	6.8

자료: 국세통계

고양특례시 개인기업(창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1년 기준 개인기업(창업) 수는 38,990개 수준으로 2016년 24,625개 대비 14,365개, 약 58.3% 증가하였으며 2020년 33,358개 대비 5,632개, 약 16.9% 증가하였다. 비중을 살펴보면 고양특례시 전체 창업기업의 93.5% 수준이며 2016년 90.6%에 비해 2.9%p

증가하였다. 고양특례시 개인기업(창업) 추이는 아래 [표 28]과 같다.

[표 28] 고양특례시 개인기업(창업)

(단위 : 개)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16년 대비 증가율(%)
개인기업	24,625	23,916	30,358	25,376	33,358	38,990	58.3

자료: 국세통계

이를 요약하면 고양특례시 전체 창업기업은 2016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법인기업(창업)의 경우에는 2016년 대비 2021년 법인기업(창업) 증가율은 6.8%로 국내 전체 법인기업(창업) 증가율 31.3%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인다.

2) 신생률 및 폐업률

최근 6년간 고양특례시 창업률(신생률)을 살펴보면, 2021년 전국 창업률이 15.83%, 고양특례시는 20.53%로 고양특례시가 높으나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전국 전체 창업률이 13.55%, 고양특례시는 13.35%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고양특례시 창업률(신생률)은 2021년 20.53%로 2016년 20.11% 대비 0.42%p 증가하였다. 2021년 기준 창업률은 20.53%로 2020년 19.79%에 비해 0.74%p 증가하였다. 전국 창업률(신생률)은 2021년 15.83%로 2016년 17.81% 대비 1.98%p 감소하였다. 2021년 기준 창업률은 15.83%로 2020년 17.56%에 비해 1.73%p 감소하였다. 고양특례시와 전국의 창업률(신생률) 비교 현황은 아래 [표 29]와 같다.

[표 29] 고양특례시 및 전국 창업률(신생률)

(단위 :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고양특례시	20.11	18.60	21.00	16.82	19.79	20.53
전국	17.81	17.78	17.89	16.36	17.56	15.83

자료: 국세통계

고양특례시 법인기업 중 2021년 창업률(신생률)은 13.35%로 2016년 17.02% 대비 3.67%p 감소하였다. 2021년 기준 창업률은 13.35%로 2020년 13.86%에 비해 0.51%p 감소하였다. 전국 법인기업 중 2021년 창업률은 13.55%로 2016년 15.04% 대비 1.49%p 감소하였다. 2021년 기준 창업률은 13.35%로 2020년 14.10%에 비해 0.55%p 감소하였다. 고양특례시와 전국의 법인기업 창업률(신생률) 비교 현황은 아래 [표 30]과 같다.

[표 30] 고양특례시 및 전국 법인기업 창업률(신생률)

(단위 :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고양특례시	17.02	16.30	14.65	13.83	13.86	13.35
전국	15.04	14.12	13.86	13.72	14.10	13.55

자료: 국세통계

고양특례시 개인기업 2021년 창업률(신생률)은 21.33%로 2016년 20.50% 대비 0.83%p 증가하였다. 2021년 기준 창업률은 21.33%로 2020년 20.47%에 비해 0.86%p 증가하였다. 전국 개인기업 2021년 창업률은 16.16%로 2016년 18.19% 대비 2.03%p 감소하였다. 2021년 기준 창업률은 16.16%로 2020년 18.06%에 비해 1.90%p 감소하였다. 고양특례시와 전국의 개인기업 창업률 비교 현황은 아래 [표 31]과 같다.

[표 31] 고양특례시 및 전국 개인기업 창업률(신생률)

(단위 :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고양특례시	20.50	18.89	21.76	17.17	20.47	21.33
전국	18.19	18.29	18.45	16.74	18.06	16.16

자료: 국세통계

고양특례시와 전국의 창업률(신생률)을 비교하였다. 2021년 기준 전체 창업률을 보면, 고양특례시와 전국의 차이는 4.7%p이다. 고양특례시와 전국의 법인기업 창업률 차이는 -0.2%p이며, 고양특례시와 전국의 개인기업 창업률 차이는 5.17%p로 나타났다. 고양특례시와 전국의 창업률(신생률) 비교 현황은 아래 [표 32]와 같다.

[표 32] 고양특례시 및 전국 창업률(신생률) 비교(2021년 기준)

(단위 : %)

구 분	고양특례시	전국	차이(%p)
전체	20.53	15.83	4.70
법인기업	13.35	13.55	-0.20
개인기업	21.33	16.16	5.17

자료: 국세통계

그다음 최근 6년간 고양특례시 폐업률(소멸률)을 살펴보았다. 고양특례시 폐업률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고양특례시 폐업률은 2021년 기준 9.91%로 2016년 14.26%에 비해 4.35%p 감소하였다. 2021년 기준 고양특례시 폐업률은 9.91%로 2020년 10.61%에 비해 0.70%p 감소하였다. 전국 폐업률은 2021년 9.61%로 2016년 13.20% 대비 3.59%p 감소하였다. 2021년 기준 폐업률은 9.61%로 2020년 10.35%에 비해 0.74%p 감소하였다. 고양특례시와 전국의 폐업률 비교 현황은 아래 [표 33]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33] 고양특례시 및 전국 폐업률(소멸률)

(단위 :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고양특례시	14.26	13.13	12.14	11.36	10.61	9.91
전국	13.20	12.57	11.74	11.46	10.35	9.61

자료: 국세통계

고양특례시 법인기업 폐업률을 살펴보았다. 고양특례시 법인기업 폐업률은 2021년 기준 6.01%로 2016년 9.21%에 비해 3.20%p 감소하였다. 2021년 기준 고양특례시 폐업률은 6.01%로 2020년 6.84%에 비해 0.83%p 감소하였다. 전국 법인기업 폐업률(소멸률)은 2021년 5.60%로 2016년 8.33% 대비 2.73%p 감소하였다. 2021년 기준 폐업률은 5.60%로 2020년 6.22%에 비해 0.62%p 감소하였다. 고양특례시와 전국의 법인기업 폐업률 비교 현황은 아래 [표 34]에 제시하였다.

[표 34] 고양특례시 및 전국 법인기업 폐업률(소멸률)

(단위 :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고양특례시	9.21	9.28	8.82	8.19	6.84	6.01
전국	8.33	7.96	7.42	6.94	6.22	5.60

자료: 국세통계

고양특례시 개인기업 폐업률을 살펴보았다. 고양특례시 개인기업 폐업률은 2021년 기준 10.34%로 2016년 14.89%에 비해 4.55%p 감소하였다. 2021년 기준 고양특례시 폐업률은 10.34%로 2020년 11.05%에 비해 0.71%p 감소하였다. 전국 개인기업 폐업률은 2021년 10.20%로 2016년 13.88% 대비 3.68%p 감소하였다. 2021년 기준 폐업률은 10.20%로 2020년 10.94%에 비해 0.74%p 감소하였다. 고양특례시와 전국의 개인기업 폐업률 비교 현황은 아래 [표 35]에 제시하였다.

[표 35] 고양특례시 및 전국 개인기업 폐업률(소멸률)

(단위 :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고양특례시	14.89	13.61	12.53	11.73	11.05	10.34
전국	13.88	13.21	12.34	12.10	10.94	10.20

자료: 국세통계

고양특례시와 전국의 폐업률(소멸률)을 비교하였다. 2021년 기준 전체 폐업률을 보면, 고양특례시와 전국의 차이는 0.3%p이다. 고양특례시와 전국의 법인기업 폐업률 차이는 0.41%p이며, 고양특례시와 전국의 개인기업 폐업률 차이는 0.14%p로 나타났다. 고양특례시와 전국의 폐업률(소멸률) 비교 현황은 아래 [표 36]과 같다.

[표 36] 고양특례시 및 전국 폐업률(소멸률) 비교(2021년 기준)

(단위 : %)

구 분	고양특례시	전국	차이(%p)
전체	9.91	9.61	0.30
법인기업	6.01	5.60	0.41
개인기업	10.34	10.20	0.14

자료: 국세통계

이를 요약하면 고양특례시와 전국의 창업률과 폐업률을 비교하면 고양특례시 창업률은 전국 창업률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폐업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지닌다. 법인기업 창업률은 국내 전체 창업률 13.55%, 고양특례시 13.35%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법인기업 폐업률은 국내 전체 폐업률 5.60%, 고양특례시 6.01%로 고양특례시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인다.

2. 주요 도시 창업기업(법인) 비교 분석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를 중심으로 창업기업 중 법인기업 수를 비교하였다. 고양특례시는 2021년 기준 2,724개로 총 33개 도시 중 19위에 위치하고 있다. 2016~2021년 평균값을 기준으로 나열하면 고양특례시는 총 33개 도시 중 18위에 위치한다. 고양특례시보다 상위권에 위치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용인시 5,303개, 화성시 4,721개, 성남시 3,044개, 안산시 2,959개로 나타났다. 인구 50만 이상 타 도시와 창업기업 중 법인기업 수를 비교하면 아래 [표 37]과 같다.

[표 37] 인구 50만 이상 타도시와의 비교(2021년 기준, 법인기업(창업) 수 비교)

(단위 : 개)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평균
1	경기도	30,867	31,481	32,884	36,123	44,333	45,416	36,851
2	서울특별시	38,180	37,496	38,844	39,785	41,303	43,875	39,914
3	부산광역시	6,648	6,435	6,413	6,941	7,614	8,588	7,107
4	인천광역시	5,566	5,432	5,800	6,269	7,110	7,504	6,280
5	경상남도	5,631	5,211	5,333	5,630	5,933	6,519	5,710
6	충청남도	4,605	4,806	4,695	5,013	5,843	6,051	5,169
7	경상북도	4,765	4,808	4,933	5,225	5,328	5,413	5,079
8	용인시	2,442	2,502	2,720	4,001	5,509	5,303	3,746
9	대구광역시	3,988	3,965	3,972	4,604	4,777	4,847	4,359
10	전라남도	4,031	4,137	4,676	4,832	4,819	4,797	4,549
11	화성시	2,629	3,036	3,171	3,642	4,688	4,721	3,648
12	전라북도	3,819	3,815	4,102	4,192	4,762	4,644	4,222
13	광주광역시	3,670	3,933	4,400	4,262	4,542	4,362	4,195
14	충청북도	3,366	3,267	3,513	3,493	4,075	4,338	3,675
15	대전광역시	3,003	2,821	2,972	3,391	3,883	3,785	3,309
16	강원도	2,725	2,791	3,002	3,028	3,612	3,611	3,128
17	상주시	2,831	2,748	2,834	2,748	3,041	3,044	2,874
18	안산시	1,942	1,915	1,791	1,991	2,822	2,959	2,237
19	고양시	2,551	2,590	2,441	2,422	2,608	2,724	2,556
20	남양주시	1,192	1,191	1,363	1,482	2,131	2,423	1,630
21	제주도	2,117	1,777	1,903	1,910	2,060	2,378	2,024
22	울산광역시	1,989	1,765	1,827	1,860	2,107	2,278	1,971
23	수원시	2,094	2,184	2,150	2,118	2,374	2,260	2,197
24	천안시	1,597	1,707	1,658	1,788	2,122	2,208	1,847
25	창주시	1,677	1,539	1,734	1,571	2,026	2,156	1,784
26	평택시	1,385	1,397	1,531	1,459	2,008	2,081	1,644
27	창원시	1,550	1,369	1,424	1,463	1,606	1,786	1,533
28	전주시	1,423	1,286	1,349	1,467	1,603	1,741	1,478
29	부천시	1,691	1,552	1,714	1,792	1,801	1,723	1,712
30	시흥시	1,233	1,269	1,276	1,358	1,673	1,583	1,399
31	안양시	1,363	1,352	1,417	1,432	1,363	1,542	1,412
32	김해시	1,128	1,101	1,111	1,124	1,162	1,329	1,159
33	포항시	781	690	709	737	862	904	781

자료: 국세통계

그다음 인구 50만 이상 타 도시와 법인기업(창업) 증가율을 비교하였다. 2016년 대비 2021년 증가율을 살펴보면, 1위는 용인시로 117.2%, 2위는 남양주시로 103.3%, 3위는 화성시로 79.6%를 보였다. 고양특례시의 경우 2016년 대비 2021년 창업기업 중 법인기업 증가율은 6.8%로 전체 33개 도시 중 32위에 위치하고 있다. 법인기업(창업) 증가율은 아래 [표 38]에 제시하였다.

[표 38] 인구 50만 이상 타도시와의 비교(법인기업 증가율)

(단위 : 개)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16년 대비 증가율(%)
1	용인시	2,442	2,502	2,720	4,001	5,509	5,303	117.2
2	남양주시	1,192	1,191	1,363	1,482	2,131	2,423	103.3
3	화성시	2,629	3,036	3,171	3,642	4,688	4,721	79.6
4	안산시	1,942	1,915	1,791	1,991	2,822	2,959	52.4
5	평택시	1,385	1,397	1,531	1,459	2,008	2,081	50.3
6	경기도	30,867	31,481	32,884	36,123	44,333	45,416	47.1
7	천안시	1,597	1,707	1,658	1,788	2,122	2,208	38.3
8	인천광역시	5,566	5,432	5,800	6,269	7,110	7,504	34.8
9	강원도	2,725	2,791	3,002	3,028	3,612	3,611	32.5
10	충청남도	4,605	4,806	4,695	5,013	5,843	6,051	31.4
11	부산광역시	6,648	6,435	6,413	6,941	7,614	8,588	29.2
12	충청북도	3,366	3,267	3,513	3,493	4,075	4,338	28.9
13	창주시	1,677	1,539	1,734	1,571	2,026	2,156	28.6
14	시흥시	1,233	1,269	1,276	1,358	1,673	1,583	28.4
15	대전광역시	3,003	2,821	2,972	3,391	3,883	3,785	26.0
16	전주시	1,423	1,286	1,349	1,467	1,603	1,741	22.3
17	전라북도	3,819	3,815	4,102	4,192	4,762	4,644	21.6
18	대구광역시	3,988	3,965	3,972	4,604	4,777	4,847	21.5
19	전라남도	4,031	4,137	4,676	4,832	4,819	4,797	19.0
20	광주광역시	3,670	3,933	4,400	4,262	4,542	4,362	18.9
21	김해시	1,128	1,101	1,111	1,124	1,162	1,329	17.8
22	경상남도	5,631	5,211	5,333	5,630	5,933	6,519	15.8
23	포항시	781	690	709	737	862	904	15.7
24	창원시	1,550	1,369	1,424	1,463	1,606	1,786	15.2
25	서울특별시	38,180	37,496	38,844	39,785	41,303	43,875	14.9
26	울산광역시	1,989	1,765	1,827	1,860	2,107	2,278	14.5
27	경상북도	4,765	4,808	4,933	5,225	5,328	5,413	13.6
28	안양시	1,363	1,352	1,417	1,432	1,363	1,542	13.1
29	제주도	2,117	1,777	1,903	1,910	2,060	2,378	12.3
30	수원시	2,094	2,184	2,150	2,118	2,374	2,260	7.9
31	성남시	2,831	2,748	2,834	2,748	3,041	3,044	7.5
32	고양시	2,551	2,590	2,441	2,422	2,608	2,724	6.8
33	부천시	1,691	1,552	1,714	1,792	1,801	1,723	1.9

자료: 국세통계, 부가가치세 시군구 신규사업자 현황

마지막으로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법인기업(창업) 연평균성장률을 비교하였다. 용인시의 연평균성장률은 16.8%, 남양주시의 연평균성장률은 15.2%, 화성시 12.4% 수준이었다. 고양특례시 연평균성장률은 1.3%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법인기업(창업) 연평균성장률을 비교하면 아래 [표 39]와 같다.

[표 39] 인구 50만 이상 타도시와의 비교(법인기업 연평균성장률)(2016~2021년)

(단위 : 개)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연평균성장률(%)	
1	용인시	2,442	2,502	2,720	4,001	5,509	5,303	16.8
2	남양주시	1,192	1,191	1,363	1,482	2,131	2,423	15.2
3	화성시	2,629	3,036	3,171	3,642	4,688	4,721	12.4
4	안산시	1,942	1,915	1,791	1,991	2,822	2,959	8.8
5	평택시	1,385	1,397	1,531	1,459	2,008	2,081	8.5
6	경기도	30,867	31,481	32,884	36,123	44,333	45,416	8.0
7	천안시	1,597	1,707	1,658	1,788	2,122	2,208	6.7
8	인천광역시	5,566	5,432	5,800	6,269	7,110	7,504	6.2
9	강원도	2,725	2,791	3,002	3,028	3,612	3,611	5.8
10	충청남도	4,605	4,806	4,695	5,013	5,843	6,051	5.6
11	부산광역시	6,648	6,435	6,413	6,941	7,614	8,588	5.3
12	충청북도	3,366	3,267	3,513	3,493	4,075	4,338	5.2
13	청주시	1,677	1,539	1,734	1,571	2,026	2,156	5.2
14	시흥시	1,233	1,269	1,276	1,358	1,673	1,583	5.1
15	대전광역시	3,003	2,821	2,972	3,391	3,883	3,785	4.7
16	전주시	1,423	1,286	1,349	1,467	1,603	1,741	4.1
17	전라북도	3,819	3,815	4,102	4,192	4,762	4,644	4.0
18	대구광역시	3,988	3,965	3,972	4,604	4,777	4,847	4.0
19	전라남도	4,031	4,137	4,676	4,832	4,819	4,797	3.5
20	광주광역시	3,670	3,933	4,400	4,262	4,542	4,362	3.5
21	김해시	1,128	1,101	1,111	1,124	1,162	1,329	3.3
22	경상남도	5,631	5,211	5,333	5,630	5,933	6,519	3.0
23	포항시	781	690	709	737	862	904	3.0
24	창원시	1,550	1,369	1,424	1,463	1,606	1,786	2.9
25	서울특별시	38,180	37,496	38,844	39,785	41,303	43,875	2.8
26	울산광역시	1,989	1,765	1,827	1,860	2,107	2,278	2.8
27	경상북도	4,765	4,808	4,933	5,225	5,328	5,413	2.6
28	안양시	1,363	1,352	1,417	1,432	1,363	1,542	2.5
29	제주도	2,117	1,777	1,903	1,910	2,060	2,378	2.4
30	수원시	2,094	2,184	2,150	2,118	2,374	2,260	1.5
31	성남시	2,831	2,748	2,834	2,748	3,041	3,044	1.5
32	고양시	2,551	2,590	2,441	2,422	2,608	2,724	1.3
33	부천시	1,691	1,552	1,714	1,792	1,801	1,723	0.4

자료: 국세통계, 부가가치세 시군구 신규사업자 현황

이를 요약하면 인구 50만 이상 타 도시와 비교했을 때 고양특례시의 창업기업 규모와 증가율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고양특례시의 창업기업 중 법인기업 수 수준은 총 33개 도시 중 19위에 머무르고 있으며, 2016년 대비 2021년 법인기업(창업) 수 증가율은 33개 도시 중 32위 수준이다. 또한 창업 법인기업 수 기준 2016~2021년 연평균성장률은 33개 도시 중 32위이다.

3. 고양특례시 창업기업(법인) 추가 분석

고양특례시 창업기업(법인)을 추가로 분석하기 위해 한국평가데이터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고양특례시 4,910개 법인기업 중 창업기업은 2,326개로 약 47.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0] 고양특례시 법인기업 및 창업기업 수와 비중

구 분	고양특례시 법인기업(개)	고양특례시 법인기업 중 창업기업(개)	창업기업 비중(%)
2021년 기준	4,910	2,326	47.37

자료: 한국평가데이터

먼저 고양특례시 법인기업(창업)을 업종별 기업 수로 분류하면, 도·소매업이 772개, 제조업 594개, 정보통신업이 244개, 건설업 225개,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154개로 나타났다. 업종별 비중을 살펴보면 도매 및 소매업이 약 33.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다음 제조업 약 25.5%, 정보통신업 약 10.5%, 건설업 약 9.7%,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약 6.6% 순이었다. 고양특례시 업종별 법인기업(창업) 수와 비중은 아래 [표 41]과 같다.

[표 41] 고양특례시 업종별 법인기업(창업) 수 및 비중

업 종	법인기업(창업) 수(개)	비중(%)
	2,326	100
도매 및 소매업(45~47)	772	33.2
제조업(10~34)	594	25.5
정보통신업(58~63)	244	10.5
건설업(41~42)	225	9.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154	6.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	74	3.2
운수 및 창고업(49~52)	58	2.5
부동산업(68)	53	2.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38	1.6
교육 서비스업(85)	24	1.0
숙박 및 음식점업(55~56)	22	0.9
금융 및 보험업(64~66)	16	0.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15	0.6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14	0.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35)	10	0.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36~39)	10	0.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3	0.1

고양특례시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업의 업종 비중은 약 36.4%로 국내 전체 법인기업(창업) 비중인 43.2%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고양특례시와 전국의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업의 비중을 비교하면 -6.8%p로 나타났으며, 업종을 고려할 때 고양특례시의 창업기업 업종은 전국 창업기업 수준보다 양

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특례시와 전국의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업 법인기업(창업) 수와 비중을 비교한 현황은 아래 [표 42]와 같다.

[표 42] 고양특례시 및 전국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업 비중 차이

(단위 : %)

구 분	고양특례시	전국	차이(%p)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업 비중	36.4	43.2	-6.8

자료: 한국평가데이터

고양특례시 창업기업 대표자 연령을 살펴보면, 20대 1.6%, 30대 14.6%, 40대 39.7%, 50대 이상 44.1%로 나타났다. 창업기업 대표자 연령별 비중을 살펴보면 50대 이상이 가장 높으며 주로 40대, 50대 이상에서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고양특례시 창업기업(법인) 대표자 연령별 비중은 아래 [표 43]과 같다.

[표 43] 고양특례시 법인기업(창업) 대표자 연령

(단위 : %)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전체 창업기업	1.6	14.6	39.7	44.1

청년층 창업(39세 이하)은 16.3%로 2021년 기준 전국 법인기업(창업)의 청년창업 비중인 28.5%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고양특례시와 전국 청년창업 비중을 비교하면 아래 [표 44]와 같다.

[표 44] 고양특례시 및 전국 청년층 법인기업(창업) 비중 비교

(단위 : %)

구 분	고양특례시	전국	차이(%p)
청년창업비중	16.3	28.5	-12.2

고양특례시 일반창업기업과 벤처창업기업의 총 고용인원 및 기업 당 평균 고용인원을 살펴보면, 고양특례시 일반창업기업 고용 인원은 12,556명 수준이며 평균 5.4명이 종사하고 있다. 벤처창업기업의 경우에는 고용 인원은 1,733명 수준이며, 평균 8.5명이 종사하고 있다. 창업기업 고용 인원과 기업 당 평균 고용인원은 아래 [표 45]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45] 고양특례시 창업기업 총 고용인원 및 평균 고용인원

구 분	기업수(개)	총 고용인원(명)	기업 당 평균 고용인원(명)
일반창업기업	2,326	12,556	5.4
벤처창업기업	204	1,733	8.5

고양특례시 기업 당 평균 고용 인원을 살펴보면 벤처창업기업이 일반창업기업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벤처창업기업이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 측면에서 우수함을 뜻한다.

V. 요약 및 주요 시사점

본 연구는 고양특례시 창업기업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고양특례시의 창업기업 현황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크게 6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고양특례시 전체 창업기업은 2016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법인기업(창업)의 경우에는 2016년 대비 국내 전체 법인기업(창업) 증가율인 31.3%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인다. 둘째, 국내 전체 창업률, 폐업률과 비교해 볼 때 고양특례시 창업률은 국내 전체 창업률과 비슷한 수준이나 폐업률은 국내 전체 폐업률보다 높은 특징을 보인다. 법인 창업률은 국내 전체 창업률 13.55%, 고양특례시 13.35%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법인 폐업률은 국내 전체 폐업률 5.60%, 고양특례시 6.01%로 고양특례시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인다. 셋째, 인구 50만 명 이상인 타 도시와 비교해 볼 때 고양특례시의 창업기업 규모와 증가율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고양특례시의 창업기업 중 법인기업 수는 총 33개 도시 중 19위에 머무르고 있으며, 2016년 대비 2021년 창업 법인기업 수 증가율은 33개 도시 중 32위 수준이다. 또한 창업 법인기업의 2016~2021년 연평균성장률은 33개 도시 중 32위이다. 넷째, 고양특례시 법인기업(창업)의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업의 업종 비중은 약 36.4% 수준으로 국내 전체 법인기업(창업) 비중인 43.2%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섯째, 고양특례시 청년창업(39세 이하) 비중은 16.3%로 2021년 기준 전체 법인기업(창업)의 청년창업 비중인 28.5%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 고양특례시 50대 이상 창업 비중은 44.1%로 2021년 기준 전체 법인기업(창업)의 50대 이상 창업 비중 25.5% 대비 높은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고양특례시 기업 당 평균 고용 인원을 살펴보면 벤처창업기업이 일반창업기업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양특례시 일반창업기업 고용 인원은 1만 2,556명 수준이며 평균 5.4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벤처창업기업의 경우 고용 인원은 1,733명이며, 평균 8.5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는 벤처 창업기업이 일반창업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 측면에서 우수함을 뜻한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양특례시는 전반적으로 낮은 창업기업 규모나 증가율, 높은 폐업률 등을 감안할 때 창업생태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국내 전체 청년창업 비중과 비교해볼 때 고양특례시의 청년창업 비중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고양특례시의 청년창업 환경을 점검하여 청년창업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과 연계를 고려할 때, 기업 당 평균 고용인원이 높은 벤처창업기업 육성과 유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고양특례시 창업기업의 현황 분석과 기초 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고양특례시 창업기업 관련 기초자료 제공 및 정책 방향 수립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김경환 (2018). 「과학기술창업론」.
- 김선우·김강민 (2020), “스타트업 성장단계 구분에 대한 탐색적 연구,” 『벤처창업연구』 제15(2)집, pp. 127-135.
- 김정홍·정윤선·안준기 (2015), “기술창업기업의 특성 및 일자리 창출 실증분석,” 『응용경제』 제17(2)집, pp. 167-193.
- 서대훈 (2019), “주요국의 스타트업(Startup) 지원방식과 시사점,” 『이슈분석』 제761호, KDB산업은행.
- 송영민·김경환 (2019), “창업 실패요인 분석을 통한 창업기업 문제 해결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제14(3)집, pp. 94-120.
- 안승구·김정호·김주일 (2017),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중견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효과,” 『기술혁신학회지』 제20(3)집, pp. 546-575.
- 양영석·김명숙 (2016), “성공적 기술창업 촉진을 위한 사전자가진단 (Self-Checkup Preparation) 항목 개발연구,” 『벤처창업연구』 제11(2)집, pp. 113-120.
- 이윤준·정기철·장병열·김선우·이민규·김영훈·김서균·정우진·이승호 (2012), “기업가정신 고취를 통한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 2012-1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이정우·김선우·김영환·이윤준·백서인·권기환·모미령·정효정·이승재 (2018), “2018년 기업가정신 모니터링 사업: 혁신창업 생태계 연구,” 정책연구 2018-20,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이현호·황보윤·공창훈 (2017), “스타트업의 초기 성공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제12(1)집, pp. 1-13.
- 정호진·정오현·윤재봉 (2020), “창원시 창업생태계 현황 및 발전방향,” 『창원시정연구원』
- 중소기업청 · (사)한국창업보육협회(2015), 기술창업가이드(Technology start up), 『(사)창업보육협회』
- 황세희·김경미·박현준 (2020), “국내 스타트업의 현황 및 성공요인 분석: (주) 우아한형제들의 사례를 통하여,”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제25(1)집, pp. 71-87.

2. 해외문헌

- Baker, T., & Nelson, R. E. (2005), “Creating something from nothing: Resource construction through entrepreneurial bricolage,”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50(3), pp. 329-366.
- Bertoni, F., Colombo, M. G., & Grilli, L. (2013), “Venture capital investor type and the growth mode of new technology-based firms,” *Small Business Economics*, 40(3), pp. 527-552.
- Chandler, G. N., DeTienne, D. R., McKelvie, A., & Mumford, T. V. (2011), “Causation and effectuation processes: A validation study,”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6(3), pp. 375-390.
- Covin, J. G., & Slevin, D. P. (1990), “New Venture Strategic Posture, Structure, and Performance: An Industry Life Cycle Analysi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5(2), pp. 123-135.
- Eric, R. (2012), “Minimum Viable Product and the Importance of Experimentation in Technology Startups,” *Technology Innovation Management Review*, pp. 23-26.
- Fisher, G. (2012), “Effectuation, causation, and bricolage: A behavioral comparison of emerging theories in entrepreneurship research,”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6(5), pp. 1019-1051.
- Jeon, H. (2016), “World Start-Up Status,” *Hyundai Research Institute*, White Paper
- Jo, G. (2017),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Plan of Domestic Startups based o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Leading Technology,” *KISTEP*, White Paper
- Kelly D. J., Singer, S., and Herrington M. (2011),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GEM) 2011 Global Report,” *Global Entrepreneurship Research Association*
- Klofsten, M. (1992), “Early development processes in technology-based firms,” *Linkoping Studies in Management and Economics*, (24).
- Lindqvist, M. (1991), “Infant multinationals. Institute of International Business”
- Miller, D. (1983), “The Correlates of Entrepreneurship in Three Types of Firms,” *Management Science*, 29(7), pp. 770-791.

- Osterwalder, A., Pigneur, Y., & Tucci, C. L. (2005), "Clarifying business models: Origins, present, and future of the concept," *Communications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16, pp. 1-25.
- Rickne, A., & Jacobsson, S. (1999), "New technology-based firms in Sweden—a study of their direct impact on industrial renewal," *Economics of innovation and new technology*, 8(3), pp. 197-223.
- Saemundsson, R. J. (1999), "New technology-based firms growing into medium-sized firms (Doctoral dissertation, Chalmers tekniska högsk.)"
- Sarasvathy, S. D. (2001), "Causation and Effectuation: Toward a Theoretical Shift from Economic Inevitability to Entrepreneurial Contingency,"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6(2), pp. 243-263.
- Sarasvathy, S. D. (2008), "Effectuation: Elements of Entrepreneurial Expertise," *Edward Elgar Publishing*.



Start-up Status and Analysis of Goyang Special City

고양특례시 창업기업 현황 분석

김용덕·김은지

GYRI고양시정연구원
GOYANG RESEARCH INSTITUTE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 빛마루방송지원센터 11층 (우)10393